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6호 【루계 제25209호】 주체105(2016)년 3월 6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618건설돌격대에 탄원한 대성구역편의봉사사업소 로동자 전옥희, 선교구역식료품종합상점 로동자 리을정은 들끓는 건설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서고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철도검찰소 부원 한정련은 그날에 간직하였던 결의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지원사업에 헌신하고있다.

정평군 옴 200인민반 오춘옥은 년로한 몸이지만 자신을 돌격대명예대원으로 등록하고 10여년간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어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당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을 돕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개성시편의봉사관리소 로동자 박명숙은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후방물자를 건설장에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조선통일발전은행 부원 장금희도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고산땅을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전변시키는 건설사업에 성의있는 지원을 다하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 번역원 리선희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헌신할 열의드높이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청춘과원건설에 이바지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고경일은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고산과수종합농장건설을 어려치레 지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영광과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앞으로도 618건설돌격대를 성의껏 지원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는데 적극 기여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나이제리아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나이제리아 에누구에 있는 엔.케이.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 리사장 로렌스 우데추쿠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강력으로 승리떨치는 조선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국제기구 성명 발표

세계 진보적인사들은 지구판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와 관련하여 보내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주강국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며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가는 선군조선의 모습에 경탄을 표시하였다.

나이제리아인민전보당 전국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구판측위성 《광명성-4》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된것과 관련하여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은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었을뿐아니라 우주과학기술분야에서 조선의 무진막강한 잠재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이 결심하면 조선의 위성은 언제든지 성과적으로 계속 발사될것이라고 확신한다.

로므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지구판측위성 《광명성-4》호를 자기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는 보도에 접하고 무한히 격동되였다.

위성발사의 성공은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위성발사를 통하여 공화국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였으며 우주를 정복할수 있는 과학기술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으로 위성발사를 단행하시여 주체조선의 국력을 우주에 떨쳐가시는 김정은장군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수리아아랍사회주의통맹당 총비서는 조선이 위성발사에서 성공한것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일심단결, 과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헌신적노력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의 승리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나라의 자위력을 굳건히 다져나가시는 김정은동지의 자주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를 커다란 긍지로 여긴다고 격찬하였다.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는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선군조선의 튼튼한 경제토대와 과학기술적위력,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력의 과시이다. 위성발사의 성공으로 조선은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미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자립경제의 위력을 세계에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에질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발전을 위해 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립장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한다고 지적하였다.

온 세계가 주체조선의 위성발사성공으로 세차게 끓고있는데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며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는 조선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의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획기적인 사변이다.

또한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자강력제일주의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과시이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강력으로 승리를 떨쳐가는 선군조선의 격동적인 현실은 진보적인류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구판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련전련승을 이룩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시비중상은 허황하고 가련한 망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대한 나라를 건설해나가는 조선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 *

주체조선의 지구판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지지하여 국제반제조정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제반제조정위원회는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관련하여 김정은최고령도자께와 조선로동당, 조선정부에 축하를 드린다.

위성발사성공은 조선인민의 승리이며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능력의 립증이다. 우리는 조선의 위성발사와 관련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의 태도와 비난소동을 규탄한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위성발사는 평화적목적을 위한것이라고 밝힌데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세력이 이를 《무기시험》으로 몰아붙이면서 조선을 위협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한다. 전쟁책동에 미쳐날뛰면서 조선에 군사적위협을 가하고있는것은 미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적인 국가로서 위성발사의 합법적이며 정정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전세계 반제평화애호인민들은 자기 힘을 발전시키려는 조선과 조선인민의 노력에 련대성을 보낸다.

사회주의 만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조선중앙통신】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자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상

각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이룩되고있는 혁혁한 성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총정의 70일전투장마다에서 불굴의 정신력과 자강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는 속에 전례없는 로력적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열흘동안 전투목표 2배이상 초과완수

기계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2월공업생산액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70일전투가 시작되여 열흘동안 성적으로 높이 세운 전투목표가 2배이상 초과완수되였다.

성의 일군들은 봄철영농부속품생산과 중요대상설비생산에 모를 박고 해당 부문 일군들을 발동하여 자재와 협동품보장을 적극적으로 따라세우도록 하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과 화력발전소들에 보낼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미 원추관, 굴은관을 비롯한 대물부분품들을 전량 생산하여 2차에 걸쳐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준 대안로동계급은 얼마전 또다시 타빈생산을 결속하고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으로 설비들을 떠나보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중요대상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안주철연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2월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계속혁신하고있으며 금성뜨락또르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영농부속품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성천강전기공장, 대동강전기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로동계급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중요대상설비생산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주체비료생산 1.6배 장성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70일전투에 진입한 후 전투이전에 비하여 일약 1.6배의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결과 주체비료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천t이나 더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벌에 보내주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두가 천리마대고조시기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할 열의를 안고 하루전투를 스스로 총화해보며 마음의 신들메를 더 단단히 하도록 하였다.

이 기업소 일군들은 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능률적인 합동작업을 진행하여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소재생산실적을 2배로 높이였다.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부분품가공을 맡은 직장들에서도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새로운 위훈창조로 빛내이고있다.

하루평균 1.5배이상의 생산실적 기록

재령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70일전투기간에 점령해야 할 생산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내세우고 과감한 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광산당조직에서는 천리마대고조시기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따라배우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실정에 맞게 짜고들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심장의 피를 끓이는 이곳 광부들은 전력사정이 긴장한 조건에 맞게 평갱한 작업은 함마전으로 대신하고 단위시간당 채굴설비들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대형자동차운전사들은 한t의 철광석이라도 더 실어나르기 위한 운동을 벌려 높은 수송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일터마다에서는 1.4분기계획을 남먼저 수행한 혁신자들이 수십명이나 때출되고 그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운동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여 보다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매일 수천t의 화물을 더 수송

개천철도국의 관내에는 화력발전소와 굴지의 탄전들, 화학공업기지 등 인민경제 중요생산단위들이 적지 않다. 수송이자 곧 생산이라는 관점에 선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대고조전역의 익측을 지켜 수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현지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70일전투에 진입한 후 중요물동수송량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철도국의 당, 행정일군들은 중요탄전, 공장, 기업소들이 위치한 화물역들에 내려가 상하차설비들을 만가동시킬수 있게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짐임자들과의 련계밑에 화물실기작업시간을 지난 시기보다 훨씬 단축하고있다.

철도국에서 조직한 진공적인 화차이동수리와 운행중 련차검사체계는 중요물동수송량을 늘이는데 한몫하고있다. 하여 공업의 식량인 석탄과 동발나무, 영농물자와 중요대상건설장들에 필요한 모래를 실은 화물렬차들이 70일전투장들을 향하여 전속으로 달리도록 하고있다.

100여척의 고기배들 일제히 출항

얼마전 70일전투의 신호총성에 화답하는 첫 출항의 배고동소리가 서해전역을 진감하였다.

수산성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지난 2월 25일 남포수산사업소에 이어 평안남도수산관리국아래 문덕, 가마포, 한천수산사업소, 평안북도수산관리국의 고기배들이 일제히 출항하였다.

중심어장으로 향한 고기배들은 100여척에 달하였다.

이것은 3월 하순에야 서해에서 어로전투를 벌릴수 있다던 기존관례를 타파하고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물고기폭포를 안아오려는 서해수산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드높은 투쟁열의를 보여주고있다.

배수리와 어구준비로 들끓는 포구마다에서는 사업소별, 고기배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앞선 어로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경험토론들이 수산관리국별로 여러차례나 진행되고 과학기술학습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전투가 시작된 후 기업소적인 대상설비생산실적은 종전에 비해 1.3배로 기록되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탕면하게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일정대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소재생산을 맡은 단위의 전기술자들은 7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능률적인 합동작업을 진행하여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소재생산실적을 2배로 높이였다.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부분품가공을 맡은 직장들에서도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새로운 위훈창조로 빛내이고있다.

매일 1.3배이상의 전력을 생산

수풍발전소의 로동계급이 총정의 70일전투를 기적과 비약의 나날들로 수놓아갈 비상한 각오를 안고 발전설비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이 중요단위들을 하나씩 타고앉아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 종업원들을 전력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또한 당의 높은 뜻대로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1발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서 한몫 단단히 할 각오를 안고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이들은 설비들에 대한 순회점검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운영과정에 사소한 부족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수위가 낮은 조건에서도 발전설비들에 대한 운영조직을 과학적으로 하여 전달보다 매일 1.3배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수력구조물직장에서는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전력생산에 리용할수 있게 언제의 부식된 부위들에 대한 뜯어내기와 시추 및 타입물주입공사실적을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중요대상설비생산성과 계속 확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전투가 시작된 후 기업소적인 대상설비생산실적은 종전에 비해 1.3배로 기록되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탕면하게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일정대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소재생산을 맡은 단위의 전투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제품의 생산성과 질을 다같이 높이고있다.

제관직장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투쟁기세도 좋다. 이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난 기간 3일이상 걸리던 천정기중기의 제관품제작을 단 하루동안에 결속한데 이어 계속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주강, 주물직장의 로동자, 채탄기직장과 권양기직장, 마광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그밖의 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질좋은 가공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새로운 형의 타빈 연구완성

함흥수리동력대학의 연구사들이 새로운 형의 타빈을 연구완성함으로써 우리의 힘과 기술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와 물질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연구완성된 새로운 형의 타빈은 거의 90%카흔류타빈으로 된 우리 나라의 수력발전소들에 전면적으로 도입할수 있을뿐아니라 개조하는데 드는 품이 적은것으로 하여 그 의의는 대단히 크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한 새로운 형의 타빈날개를 장진강2호발전소에 시험적으로 도입해본 결과에 의하면 수차효률이 평균 5% 증가하여 초기당 출력은 같은 물량에서 훨씬 높아졌다.

이 연구성과를 함경남도안에 있는 수력발전소들인 장진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에 도입하면 원간한 발전소의 생산량과 맞먹는 전력을 더 생산하게 된다.

실장 채영철동무를 비롯한 이곳 연구집단은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수력발전소들에 도입할수 있는 효률높은 타빈날개를 연구완성할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연구에 달라붙었다.

연구집단은 종전 타빈날개의 우결함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날개바퀴내부로 흐르는 류체로부터 날개에로 에네르기전달이 리상적인 조건에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어려운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여 효률이 높은 새로운 형의 타빈날개를 만들어내는데 완전히 성공하였다.

기술적 및 경제적효과성이 확고히 담보된 새로운 형의 타빈은 도입하는데 드는 원가가 매우 적어 수력발전소들에서 얼마든지 쉽게 받아들일수 있으며 그 수요는 나날이 증대되고있다.

10만산대발파 성과적으로 진행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3월 3일 석화지구에서 10만산대발파를 진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1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4호제방안 목장석공사와 바깥방파부공사를 3월 25일까지 끝낼수 있는 돌과구가 열리게 되였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종합기업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말까지 홍전도간석지건설을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석화지구에서 10만산대발파준비를 선행시키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석화지구에서 진행하게 될 10만산대발파준비를 맡은 곽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총정의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도깽굴진을 위한 철야전투를 줄기차게 벌리였다.

1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곽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와 청강기계화분사업소를 비롯한 이곳 간석지건설자들은 지금 4호제방을 완성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매일 계획을 250%이상 넘쳐 수행하면서 승리의 5월을 향하여 폭풍치며 내달리고있다.

현지보도반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에 넘쳐 강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창조로 빛내이며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 높이 떨치며

정 론

로 동 당 원 들 앞 으 로 !

1

조선로동당원, 그 부름이 다시금 엄숙히 울리고있다.

70일전투!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로 향한 총결사전에로 당원들을 부른 당중앙위원회 편지의 구절구절이 이 나라 로동당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보통날, 보통때가 아니다.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승리의 리정표를 세워야 하는 결정적이고도 책임적인 시각이다.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기상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주어야 할 성스러운 의무가 우리 당원들의 두어깨에 지워져있다.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기대를 안고 우리의 로동당원들이 일시에 일어섰다.

로동당원들이 있는 곳에 수령결사옹위의 뇌성 드높고 로동당원들의 발구름소리 높은 곳에 창조의 우뢰소리 장쾌하게 터져나온다.

그 모습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쑤격멸의 함성드높이 전호를 박차고 육탄마냥 돌입하던 1211고지의 용사들과도 같고 재더미를 헤치고 천리마의 기적을 낳던 전세대 당원들의 모습과도 같다.

조국의 전방초소의 군인당원들이 수령이시여, 우리들에게 명령만 내리시라고 웨치며 결사옹위의 총검을 으스러지게 틀어쥘 때 저기 저 상원의 로동계급당원들은 우리의 대고조에 빗장을 지르려고 미쳐날뛰는 간악한 무리들을 소성로의 불길로 태워버리겠다는 멸적의 기세드높이 세멘트생산의 일대 기적을 일으켜간다. 지심깊은 수천척 탄발들과 두줄기 궤도우에서, 격랑이는 여장이며 우리 식의 현대화의 자랑높은 경공업공장들에서 높이 세운 목표를 앞장에서 점령해가는 선구자들도 다름아닌 당원들이다.

조국의 동서남북 그 어디서나 가슴에 당원증을 품은 선구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한말음에 만리를 내닫는 만리마의 기상이 차넘친다.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의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조선의 진군로는 이렇게 열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현대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는 하나의 합법칙성이 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당과 혁명앞에 가장 중대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당은 당원들을 불러일으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켰고 당원들이 일떠서면 반드시 비약의 돌파구가 열리고 승리가 오고야만것이다.

당원의 모습은 평범한 나날에도 그러웠지만 당이 결사전을 호소할 때마다 더욱 뚜렷이 나타나군 하였다.

혁명에는 탄탄대로만 있는것이 아니다. 모든것을 령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때도 있고 시련의 언덕을 넘어서면 마침내 기다리고기다리던 승리가 오고야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도 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관가름되는 그런 관건적이고도 무거운 력사의 과제를 이 땅의 매 세대 당원들은 유감없이, 훌륭히 수행해왔다.

국권도 령토까지도 다 빼앗긴 땅에서 익측도 후방도 없이 무장투쟁을 개시할 때에도 항일의 첫 당조직 성원들이 앞장에서 억척같이 싸웠다.

조국의 운명이 관가름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마지막해 1953년을 잊을수 없다.

밖으로는 미제가 원자탄까지 휘두르며 전조선점령을 노린 《신공세》나발을 불어대고 안으로는 국가의 요직에서 딴꿈을 꾸던 자들이 미제의 《신공세》에 합류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폭동을 획책하고있었다.

당과 조국앞에 안팎으로 최대의 시련이 닥쳐왔던 그때 원자탄이 이기느냐 보총이 이기느냐, 전쟁이 장기전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승리로 끝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과연 우리 당은 누구들을 굳게 믿었던가.

당원들이었다.

전체 당원들을 총결사전에로 부른 당중앙위원회 편지에 화답하여 우리 당원들이 조국의 고지마다에서 피쳤던 혜침—《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하여 조국의 촌토를 수호하자!》, 《모두다 적을 섬멸하는 결사전에로!》…

우리 조국은 바로 이렇게 미제와의 관가리싸움의 혈전의 언덕도 조선로동당의 불사조들인 당원들과 함께 넘었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는 물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당 제6차대회를 로력적위훈으로 빛나게 장식한 100일전투의 선봉에도 당원들이 서있었다. 지구상에서 사회주의의 런이은 붕괴라는 쓰라린 비극이 산생될 때에도 오직 우리 조국에서만은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뇌성이 울려나올수 있은것도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과 같은 충정의 인간들의 불굴의 신념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고립과 압살의 광풍을 몰아올 때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이 되겠다는 철석의 맹세를 다진 사람들도 우리 군인당원들이였고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천만을 불러일으키며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온 선구자들도 자강도로동계급당원들이였다.

우리 조국이 이룩한 하나하나의 새로운 승리앞에는 언제나 당원들의 결사전이 있었다.

성스러운 그 력사를 풀어안고 오늘도 세기의 창공높이 펄럭이는 우리의 당기를 경건히 우러러본다.

그 기폭에 위훈의 별들은 새겨져있지 않다.

오직 붉게만 타는 조선로동당 기폭은 그대로 당원들이 자신들의 심장을 바쳐 찍어간 그 무수한 피자욱들이 합쳐져 물들여진것 아니던가. 당원들이 흘린 피는 언제나 값비싼 승리로 이어졌고 인민의 영광으로 빛났거니 생각해보자. 무엇때문에 당중앙은 혁명의 가장 존엄하고 결정적인 시기마다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가운데서도 다름아닌 당원들부터 소리쳐부르는것인가.

바로 조국의 운명을 건 투쟁에서 목숨바쳐 싸워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기때문이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칠것을 맹세하고 당에 들어온 혁명가가 바로 당원이다.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을 바꾸면 삶 그자체가 끝장나는, 오직 투쟁하기 위해서 혁명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령도자는 당원들과 손을 맞잡을 때 제일로 뜻이 잘 통하고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것이다.

혁명의 최고뇌수이고 단결의 중심인 수령에게는 언제 어느때나 자신처럼 믿고 의지할수 있는 동지들이 필요하다. 그런 동지들이 바로 당원들이다.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새로운 기적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조선로동당의 존엄을 걸고 위성발사를 확신성있게 단행하신것은 무엇때문이였는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보한다니 마음이 든든하오라고 하시던 그 굳건한 기대, 우리 당의 붉은 과학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혈연적인 믿음의 힘이 안아올린 쾌승이였다.

당은 동지들을 믿고 동지들은 당을 믿고!

우리 수령님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당원들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안으시고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성과적으로 이끄시였고 지금 이 시각도 대고조진군의 포성을 온 세상이 다 듣도록 신심드높이 울려가고계신다.

령도자는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당원들과 흉금을 터놓고 방도를 의논하고 당원들은 그것이 당의 요구라면 즉시접수, 즉시관철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당안에 꽉 차있는 동지의 세계이다.

조선이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것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끝없이 승승장구하는것은 언제 어느때나 당과 조국이 요구하면 목숨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당원들의 대오가 있기때문이다.

당과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수백만 당원들을 천만줄을 늘어 키워 혁명의 길에 내세우신것이야말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이고 그분들께서 남기신 소중한 유산이다.

원쑤들과의 결사전을 벌리고 나라가 허리를 펴야 할 때, 대고조로 천만을 불러일으켜야 할 때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당원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가슴속에 혁명가의 자각을 심어주시며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였다. 력사의 그 하많은 사연들을 오늘도 락원땅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사적비며 장산리의 풍금이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나도 당세포의 한 당원입니다라고 하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처럼 크나큰 업적을 쌓으시고도 손수 단 몇줄로 소박하게 쓰신 자신의 리력문건을 당세포에 가져오시여 당원들의 가슴속에 숭고한 당조직관념을 새겨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당원강습을 마련하시여 혁명가의 참된 삶의 길을 가르쳐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손길아래 얼마나 끝끝하고 미더운 당원들이 자라나 이 조선을 받들어왔던가.

우리 장군님께서도 그렇게 당원들을 키워오시였다.

그 언제였던가.

나는 당원의 영예를 지닌 동무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원이란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의 고귀한 칭호입니다, 그런것만큼 당원은 언제나 이러한 칭호를 빛내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시며 사랑하는 동지에게 조선로동당원들이 생명으로 삼아야 할 투쟁의 진리를 심장에 포아박아주시던 무한한 혁명세계를 어찌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력사적인 12월의 강선길에서 조국번영의 새로운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며 오늘의 대고조는 당이 당원들을 믿고 불을 지핀 대고조라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시던 크나큰 믿음의 세계가 파도쳐온다.

언제인가 그이께서 하신 말씀! 생각해보라. 만약 1950년대라면 우리가 당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호소했을것인가.

그렇게 불같이 흘러왔다.

조선로동당원들을 투쟁의 선봉에 세워주시며 그들을 불러일으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한길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당원들의 자애로운 스승이 되시여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키워주고계신다.

젖음마를 메여주는 어머니심정으로 때로는 조선로동당에 입당한 한 청년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며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맡은 일을 잘하도록 우리 당에서 잘 이끌고 도와주겠다는 자신의 뜨거운 마음도 전해주시였다. 우리 당의 걱정을 덜어드릴 마음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키운 한 녀성에게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핵심당원이라는 최상의 평가도 안겨주시였다.

당창건 70돐 경축광장의 높은 연단에서도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갑시다!》라는 불타는 호소로써 이 나라 수백만 당원들의 심장속에 성스러운 인민복무의 자각을 심어주신 그이이시였다.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 삶의 피줄기를 잇고 혁명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수백만 당원들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가장 큰 자랑이고 백만보다도 위력한 조선의 국력이다.

우리에게는 수백만 당원들이 있다!

이런 긍지, 이런 자부면 이 세상 못 넘을 고비가 없고 성취 못할 꿈과 리상이 없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이는 곧 우리 당의 경사인 동시에 전체 조선로동당원들의 경사이다.

수백만 당원들의 뭉친 힘 당할자 세상에 없거늘 성스러운 조선로동당기앞에 엄숙히 서서 다시금 심장에 물어보며 자각하자.

력사적인 5월의 경사를 어떤 자세, 어떤 발걸음으로 마중가고있는가.

2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다!

육체적생명의 박동보다도 제일먼저 심장에 와닿는 부름이다.

당원이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그 부름 외우면 모래알같던 자신도 거인처럼 느끼지고 절해고도에 홀로 서있어도 죽음의 고비도 타고넘을 용맹이 샘솟는것인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것과 함께 당원들의 대도 바뀌였다.

그러나 우리 당원들의 가슴속에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간직하고 사는 긍지와 자랑이 있다.

우리는 수령옹위의 제일핵심!

이것이 공산주의자로서의 우리 로동당원들의 진정한 본태이고 바로 이런 성스러운 사명감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당원들의 삶은 세기를 이어 그토록 빛을 뿌리는것이다.

당원들이여, 누구나 다시한번 자신들의 당원증을 펼쳐보시라.

수령의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혁명가로서 살며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원들의 값높은 삶이 얼마나 뜨겁게 비껴있는것인가. 당원의 생은 그 시작도 끝도 오로지 수령의 품속에 있다. 수령옹위가 우리의 로동당원들에게 있어서 삶의 첫째가는 요구로 되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태양의 영원한 전사로 삶을 빛내이려는 충정의 한마음으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 값높은 최후를 마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구잠함 233호의 용사들, 그날에 희생된 당원 김설윤동무의 품속에서 나온 입당청원서앞에 자신들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당원이 되기를 그리도 간절히 소원하며 한자두자 썼을 입당청원서, 당원이 되여서도 그것을 몸에서 순간도 떼여놓지 않았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도 품에 간직하고있은 그 입당청원서야말로 언제나 당기앞에서 수령께 충정을 맹세하시던 그날의 한마음, 한자세로 사는것이 참된 당원의 삶이고 영광이라는것을 얼마나 눈물겹게 되새겨주는것인가.

오직 자기 령도자만을 아는 그 모습 바다에만 새겨졌던가. 수령옹위의 비행운이 새겨지는 저 푸른 하늘에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이 땅에도 당원들의 모습은 충정의 별무리마냥 아름답게 빛난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우리 신념 붉게 피리라,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위대한 김정은시대 당원이라면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는 이런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선봉투사, 오직 한마음의 인간으로 살며 투쟁하려는것이 온 나라 로동당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신조이다.

생각해보자.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인 건설동지사의 성원들이 천이였던가, 만이였던가. 비록 몇명이였어도 자기 수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절대의 신념을 지닌 그 한명한명의 모습이야말로 원쑤들을 전률케 한 누리에 불는 불이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벌리려고 미쳐날뛰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당원들이 수령옹위전, 수령사수전의 붉은 칼날을 날카롭게 벼려야 할 때이다.

당원의 생명이 수령옹위라면 당원의 이름은 선봉투사이다.

당원은 언제나 기수의 모습으로 조국앞에 나선다.

기발을 즐기는 자리에서는 선뜻 눈에 띄우지 않다가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과업이 나설 때 《이 일을 누가 하겠소?》라는 물음앞에 선참으로 심장을 내대는것이 당원의 모습이다.

우리 당이 온 나라가 만리마를 타고 달릴것을 바라는 지금이야말로 당원들부터가 혁명을 위하여 한몸 서슴없이 내대는 육탄정신을 체질화하고 결사적으로 돌격침로를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

당원들의 직업과 일터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그 다종다양한 직종을 초월하는 당원의 오직 한자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대오의 맨 앞자리이다.

당원이 서야 할 위치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자리이고 당이 요구할 때에는 자기를 바칠줄 아는 헌신의 자리이며 공로를 평가할 때에는 동지를 먼저 내세우며 양보하는 자리이다.

당원은 헌신 그자체를 명예로 간주하는 사람이다. 그 누구도 시켜서 당원이 된 사람은 한명도 없다.

당원은 자기를 내세워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바치기 위해서 입당한 사람이다.

지난 세기 70일전투의 나날 우리의 로동계급당원들이 바로 그렇게 싸웠다.

당시 천리마대안전기공장의 로동계급이 20만kVA대용량변압기를 완성해나가던 마지막하루전에 있은 일이다. 뜻밖에 밖에서 비가 내려 용접을 할수 없게 되였다. 그렇다고 당앞에 맹세다진 날자를 조금이라도 드팀수 없었다. 순간 용수철마냥 튕겨일어나 용접봉을 들고 전투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당원들이였다. 언제 어디서나 불가능을 모르는 당원들의 뒤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비를 막아나섰고 외함제작에 달라붙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달이 걸려야 한다던 작업과제를 단 7일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게 되였다.

그때는 정말 온 나라 도처에서 당원들이 앞장에서 서 힘과 열정을 1,000%로 폭발시키며 맡은 일을 해제끼던 격동의 세월이였다.

1,000%!

말만 외워보아도 놀라운 수자이다.

결코 지금보다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였다.

어느 한 탄광에서 좋은 탄발을 내놓고 나쁜 탄발으로 자진해간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왜 굳이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대로 살고있을뿐입니다. 그 어떤 보수를 바라서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바로 우리 당원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가서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말아안은 탄발에서 끌기먹은 석탄층과 맞다들릴 때면 수령님께서 어떻게 교시하시였소, 석탄을 제꿋이 캐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소라고 불같은 진정을 터치며 물줄기를 돌려 끝끝내 한줌 석탄까지 말끔히 캐내여 증산의 탑을 높이 쌓은 그들.

정녕 불같은 그 세월에 창조의 메아리로 울린 1,000%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일에서는 불가능을 몰랐고 한계를 몰랐던 정신력의 1,000%, 투쟁열의 1,000%였다.

전세대 당원들의 그 깨끗한 진정을 닮아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나라일에 장그러 몸을 적시려는것이 우리 시대 당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황철의 로동계급당원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산소열법에 의한 주체철생산은 불가능하다는 맥빠진 소리가 흘러나오고있을 때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겠소.》라고 불같이 나서며 끝끝내 주체철생산을 안아왔다면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상원의 로동계급당원들은 현대적이며 국산화된 가방용천생산공정확립이며 세멘트생산의 최고생산년도수준돌파의 자랑을 꽃피웠다.

당원들이여, 오늘의 이 기세, 이 앙양을 늦추지 말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고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뢰관이 되여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의 앞장에서 내달리라. 《당원들은 인민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불변의 의지를 지니고 살며 투쟁하라!》라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하늘이 무너져도 두발을 뻗치고 서서 몸이 열조각, 백조각 나도 순간도 당정책옹위전을 멈추지 말자.

안일해이는 당원들에게 있어서 독약과 같다.

자연계에는 사계절이 있어도 혁명가에게는 투쟁의 한계절만이 있을뿐이다. 언제나 투쟁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혁명가로서의 본래의 자세를 잃지 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의 나팔소리를 울리자. 한줄 채가 되는 순간까지 끝없이 연소되는 석탄처럼, 장그러 녹아 흔적없이 사라지면서도 부식을 자래우는 비료처럼 온몸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태우며 대고조의 돌파구를 열자. 지난 세기 70일전투의 나날 전투기록장을 만들어놓고 매일 지력갱생한 정형, 학습한 정형을 빠짐없이 기록해가며 당성을 단련해가던 선배당원들처럼 자강력제일주의와 전민학습의 열풍속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 끊직끊직한 재부를 마련해가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당원이라면 마땅히 오늘의 당과 조국의 력사에 자기의 이름을 뚜렷이 남기는 애국자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

우리 수령님께서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두고두고 회고하신 락원의 녀당원 신포항영웅.

오늘도 그가 일하던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는 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신포항당세포가 있다.

영웅은 기껏해서 스물아홉해밖에 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그의 삶의 흔적은 오늘도 길이 남아 후세당원들의 발걸음새를 가르쳐주고있거니 당원의 삶은 그가 산 육체적나이로 남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해 피와 땀으야 한다.

당원증을 품고 혁명가의 첫길을 떠날 때에는 누구나 한모습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조국과 인민앞에 언제나 그 한모습으로 서게 하는것인가.

당적신념과 량심이다. 당원에게서 이것을 떼여놓으면 죽은 목숨이나 같다.

당원은 명예도 관직도 아니다.

당을 받드는 한마음만을 인생의 재부로 안고 사는 긍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놓고 생각하는 품이 남다르고 솔어도 웃어도 직장일, 나라일을 두고 울고웃는 티없는 진정, 령도자의 걱정을 제일먼저 헤아릴줄 알고 그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지 못하면 안타까와 견디지 못하는 깨끗한 마음, 인민의 행복에서 보람을 찾으며 한몸을 깡그리 묻는 불같은 희생정신…

그 정신, 그 마음이 애국이고 아름다운 생의 자욱이다.

자신들의 량심에 물어보자. 순간이라도 당원이란 부름을 놓고 그 어떤 행운부터 바란적은 없는가, 인생의 한 구간을 넘었다고 자신에게 쉬엿구렁을 내린적은 없는가.

과연 평가를 바라고 명예를 바라는 마음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다면 끼니는 건널지언정 술을 돌보는 일은 하루도 먼지지 않고 나라의 산림을 두고 늘 애쓰시는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짐을 뜨거운 량심으로 덜어드리려고 애쓴 푸른 숲의 참인간에 대해 생각할수 있고 한집안의 재산이 늘어나는 재미가 아니라 자기가 몰아가는 무궤도전차에 늘어난 붉은별 마흔개를 보며 인생의 락을 느끼며 살아온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공훈운전사에 대한 미담을 생각할수 있으랴.

우리 로동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지킨다는것이 다른것이 아니다.

심장속에 간직한 당적신념과 량심을 지키는것이 곧 당중앙결사옹위이고 사회주의 수호전이다.

당은 곧 수백만 당원, 그들의 심장속에 있다. 당원은 일개인이 아니며 한사람한사람이 살아숨쉬는 당과도 같다!

당원이라면 자기의 삶과 투쟁으로써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권위가 지켜진다는것을 자각하고 나무 한그루를 심고 한차지의 쇠물을 뽑아도 깨끗한 량심을 묻자, 성실한 땀을 바치자.

참으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복무를 인생의 멋으로, 락으로 여기는 고결한 당원들이 많아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번영하는것이다.

당 제7차대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오늘의 이 영웅적진군의 맨 앞장에는 온 나라 모든 당원들이 삶의 귀감으로 모시고 따를 위대한 혁명가가 서계신다.

그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제1비서도 정당원입니다라고 하시며 당원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려는 불변의 의지를 안으시고 초강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분이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당 제7차대회가 다가올수록 그이의 심장의 박동은 더욱 세차게 높뛰고있거늘 막장과 포전, 고기배의 갑판우에서, 연구소의 창가아래에서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당세포 결정에 손들어 찬성한 당원들이여! 과연 우리 원수님의 어깨우에 실린 만짐을 두고 어찌 순간인들 신들메를 늦출수 있으랴.

우리의 수백만 당원 한사람한사람이 수령옹위의 제일핵심이 되고 멸사복무의 기수가 되여 위훈의 탑을 높이 쌓아올릴 때 승리의 축포는 5월의 하늘가에 아름답게 수놓아지게 될것이다.

당원들의 돌격속도이자 혁명의 진군속도이다. 당원들이 결심하고 일떠서면 수령의 올훈관철전에서도, 자연과의 전쟁에서도, 경제활성화와 문명강국건설에서도 자랑찬 승리를 앞당기게 된다는것을 조선의 로동당원들이여,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자.

그대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면! 고난의 비바람을 다 막아 만복을 안겨주고 오늘은 창조의 만리마에 태워 투쟁의 선봉에 내세워주는 고마운 우리 어머니에게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삼가 드리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진행하게 될 영광의 대회장에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안고 떳떳이 들어서자.

그때에 가서, 위대한 당의 모습을 세계가 또다시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는 그때에 가서 우리 함께 가슴펴고 떳떳이, 긍지높이 웨치자.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라고!

박 옥 경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방 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당선자

포스땡 아르상쥬 뚜아데라각하

나는 당신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민족적단합, 자주적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3월 3일 평 양

자강력의 강자들로 키워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

바로 여기에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가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나 착상도 설계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멋이 나게 해야 하며 작전과 실천도 우리 식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주체105(2016)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아주시였다.

품절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게 된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세차게 설레였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용천을 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형태의 학생용가방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성별과 년령심리적, 신체적특성에 맞게 손색없이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학생용가방들이 볼수록 멋있다고, 형태와 색갈이 다양할뿐만아니라 편리성, 기능성, 미학성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판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특히 자강력제일주의에 대한 뜻깊은 말씀을 주시며 그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시였다.

현대적이며 국산화된 가방용천생산기지를 꾸려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우리가 만든 멋있는 가방을 메고 웃고 떠들며 학교로 오고갈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면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는것이 바로 자강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최상의 꿈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고 해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이제 이뿐이랴.

찾으시는 곳,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하나의 제품, 하나의 창조물을 보시여도 그것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라면 그처럼 만족해하시며 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바치시는 로고와 심혈을 어찌 한두마디 말이나 글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진정 1년을 10년 맞잡이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하는 내 조국의 경이적인 성과들이야말로 우리 원수님 높이 추켜드신 자강력제일주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우리 천만군민을 자강력의 강자들로 키워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전 광 남

충정의 70일전투철야진군을 힘차게 다그친다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의 위력으로 대중적영웅주의열풍을!

성, 중앙기관, 도, 시, 군당조직들에서

전당이 70일전투열풍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온 나라가 앙양된 정치적분위기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정치사업,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성, 중앙기관, 도, 시, 군당조직들에서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사상전의 포성을 더욱 높이 울려 온 나라에 앙양된 정치적분위기가 꽉 차넘치게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고있다.

전력공업성, 석탄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농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는 70일전투에로 일군들과 정무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년대기들마다에 진행된 70일전투, 100일전투, 200일전투, 새로운 200일전투, 150일전투, 100일전투가 벌어지게 된 동기와 전투기간에 이룩된 성과와 그 요인 등을 새겨주기 위한 집중학습을 통하여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펼쳐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창조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이라는것을 잘 알고 70일전투에서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할 결심을 굳게 가지였다.

정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70일전투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벌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작전에 따라 2월 23일 도안의 시, 군, 련합기업소들에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70일전투에로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출동모임이 진행되였다.

도당위원회 파장이상 일군들을 책임자로 하는 5개의 집중경제선동대들이 조직되여 도안의 중요련합기업소들과 주요알곡지대들을 타고앉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당중앙위원회 편지의 사상과 정신을 해설해주고 현장에서 창작한 시도 읊어주며 집중경제선동대원들이 벌려나가는 힘있는 경제선동에 고무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주요생산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2월 26일 수십년만에 가장 높은 생산실적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시, 군, 련합기업소와 협동농장 소재지의 중요장소들에 전개된 160여대의 방송선전차들의 활동도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은 위력을 떨치고있다.

도안의 고급중학교와 초급중학교학생들로 무어진 학생취주악대만 해도 100여개나 되고 학생가창대는 640여개이다. 하루공부를 마치고 거리를 누비며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이들의 선동활동은 사람들의 가슴을 방방 울려준다.

정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정치실무수준이 높고 전개력이 강한 천수백명의 일군들로 강력한 당지도소조를 조직하고 그들을 시, 군, 련합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전투현장에 파견하였다.

전투진지를 차지한 당지도소조성원들은 야전형의 지휘관이 되여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데 어깨를 들이대며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도작가동맹위원회 작가들도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전투장들에 나가 현지에서 창작한 시를 가지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 직외장연강사들과 공로자강연강사들로 조직된 집중강연선전대가 맹활약을 하고있다. 특히 박천군의 공로자강연강사들로 무어진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의 활동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태천군, 녕변군출판물보급소의 출판물보급원들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기동적이며 참신한 도서선전활동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비상히 폭발시키고있다.

기동예술선동대활동도 보다 적극화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시, 군, 련합기업소에 있는 근 30개의 기동예술선동대와 도안의 160여개의 녀맹기동예술선동대가 주요생산단위와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이들의 경제선동에 고무된 도안의 농업부문의 농장원들은 최근 10일동안에만 하여도 51만 5 000여의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논밭에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천군, 재령군, 안악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안의 농촌부문의 선동원들도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을 지켜선 높은 영예와 책임감을 안고 들끓는 포전에서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성, 중앙기관, 도, 시, 군당조직의 당일군들이 벌려나가고있는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은 70일전투의 철야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대고조적전장들마다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신의주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새 기술도입성과 계속 확대

황북종합대학에서

황북종합대학에서 망에 의한 수자광산정보체계를 개발하고 여러 광산들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수자광산정보체계는 공장, 기업소의 통합생산관리체계와 같이 탐사와 갱건설, 채굴, 채광 등 광산의 모든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체계이다.

수자광산정보체계는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생산효률을 높일수 있게 한다.

몇해전 대학에서는 수자광산정보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집단을 뭇고 연구사업을 힘있게 다그쳤다.

이 과정에 다른 나라들의 수자광산정보체계보다 더 우월한 우리 식의 수자광산정보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여러 광산들의 생산을 훨씬 늘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활동을 줄기차게 벌려온 대학의 연구집단은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할 일념을 안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망에 의한 수자광산정보체계를 완성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시기에 개발한 수자광산정보체계를 더욱 발전시킨 망에 의한 수자광산정보체계는 광산일군들이나 기술자들만 리용하던 범위를 벗어나 광산의 종업원들이 모두 리용할수 있게 되여있다.

결과 이 체계를 도입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은파광산 등 여러 단위들에서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망에 의한 수자광산정보체계에 대한 호평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받아안고 70일전투에 들어선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여러 광산들에 망에 의한 수자광산정보체계를 도입할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해당 단위들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보조프로그람들을 개발완성하기 위하여 줄기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에 넘쳐있는 이들의 불같은 열정으로 하여 도입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공 로 혁

평성석탄공업대학에서

70일전투의 눈부신 성과 어부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틀어쥐고나가는가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한 채명학, 심광철동무를 비롯한 평성석탄공업대학의 책임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새 탄맥확보와 갱도옮지 및 보호, 석탄운반능력개선을 과학연구사업의 중심고리로 확고히 틀어쥐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적극 짜고들고있다.

70일전투기간 여러종에 100여개의 새 기술제품들을 개발 및 제작, 도입할 높은 목표를 세운 이들은 연구력량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주어 빠른 시일안에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첨단기술제품개발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세멘트의 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세멘트분산제, 갱안의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갱안산성수정화제개발 등에 달라붙는 한편 탄광들 어디서나 요구하는 갱안비저항CT탐사기와 소형전기식착암기, 휴대용용접기를 비롯한 새 기술제품들을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탄광전기공학부 연구사 박사, 부교수 김의부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한소전콤퓨터에 의한 탄광전차의 임풀스조종장치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탄광기계공학부 강좌장 한철민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전기식버럭적재기를 더 많이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탄광기계공학부 학부장 김선균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도욕아원, 애육원의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산형으로 훌륭히 설계, 시공하여 대학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대학의 한 연구집단은 광산버럭을 주원료로 리용한 새로운 용접봉피복제를 연구완성하여 주철용접봉생산에서 성공함으로써 나라에 커다란 리익을 줄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밖에도 과학연구과제들이 방대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애국충정의 일념을 안고 철야전투를 벌리며 기세좋게 큰걸음을 내짚고있는 이들은 날마다 커다란 연구성과들을 거두고있다.

본사기자 김 명 훈

모든 건축공사 마감단계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충정과 위훈으로 빛내이기 위한 대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공사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70일전투가 시작된이래 지난 5일현재 공사실적은 전투전에 비해 매일 평균 1.3배로 뛰여올랐다. 문화회관과 보조건물건설을 맡은 여러 부대 군인건설자들은 공사과제를 2.5~3배이상, 자연박물관과 본관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1.5~2배이상 넘쳐 수행하면서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면 그만큼 강성국가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려전이 훌륭히 마련되게 됩니다.》

당이 호소한 70일전투의 장엄한 대진군은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경이적인 새 기적창조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지난 2월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모든 건축공사를 며칠안에 확고히 결속할수 있게 하는 눈부신 현실을 펼쳐놓았다.

지난 2월말 공사지휘부일군들은 자재보장이자 공사실적이라는 관점밑에 세멘트와 강재를 계획보다 1.2배로 확보하여 당면한 건축공사와 3월전투계획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시공, 감독, 자재보장을 맡은 일군들은 지금 현장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철야로 공사지도에 힘을 넣어 모든 공정들에서 사소한 공백이 없도록 하고있다.

70일전투의 숨결이 고조되면서 공사에 참가한 시공단위 군인들과 건설자들, 일군들의 충정의 열도에 떠받들려 규모가 큰 대상들의 내부건축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조선인민군 백황흔소속부대 장병들이 보조건물건설공사과정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영웅적기개를 힘있게 떨치고있다. 대건설전투장을 불꽃튀는 전호로 여기고 분발해나선 이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보조건물내부와 지하차고를 비롯한 여러 대상들에서 건축공사가 빠른 기간에 결속될 전망이 확고히 내다보이고있다.

조선인민군 유성철소속부대 장병들의 비상한 창조성에 의해 선물동물2관과 문화회관건설장에서도 새 기적창조의 숨결이 세차게 약동하고있다. 부대장병들은 충정의 70일전투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문화회관내부의 벽체미장과 인조석바닥공사를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낸데 이어 전투전보다 벽체미장실적은 2배, 마감장식미장과 석재조립속도는 3배이상 높이고있다. 부대아래 한경남, 김명일소속부대 장병들은 한장의 바닥돌을 시공하고 한㎡의 미장면을 완성하여도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높이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지대정리작업도 립체적으로 추진하고있다.

대외건설지도국아래 여러 단위들이 맡은 자연박물관과 본관, 수족관과 철갑상어못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에서도 시간별, 날자별로 높은 공사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승리, 대성, 부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와 룡과, 봉화, 송화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건설자들과 일군들은 진물들의 천정과 벽체, 바닥미장을 동시에 다그쳐 하루전투계획을 110~12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는 공사장에서 총건축공사량이 93%계선을 넘어선 결과 가까운 시일안에 모든 건물내부를 조형예술적으로 완성하고 설비조립에 들어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공사장으로는 지금 여러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과 경제선동대원들이 달려와 화선식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본사기자 지 원 철

10여일동안 1.5배의 공사실적 기록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서

황해남도물길공사장이 충정의 70일전투로 세차게 끓고있다.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물길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수명절사용위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높이 10여일동안에 7 000여㎡의 토량처리와 7 000여㎡의 암석굴착, 2 000여㎡의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는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심장에 새겨 박고 당 제7차대회전으로 물길공사를 무조건 완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받들고 말그대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물길공사중앙지휘부의 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일별, 주별, 월별전투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치렬한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각 려단들에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으며 앞선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맹렬한 추적전이 벌어졌다.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일자리를 폭폭 냈다. 호소성이 강한 화선식정치사업이 벌어지는 속에 공사장마다에서는 전투시작부터 백열전이 벌어졌다. 콩크리트치기와 암석굴착을 맡은 포항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앞선 발파방법과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종전보다 공사속도를 1.5배로 높이였다. 버럭처리를 맡은 경흥군, 온성군대대에서도 립체전이 벌어졌다. 광차와 손달구지로 버럭을 처리하는 한편 수직갱입구에 활차를 설치하여 종전에 비해 2배의 공사실적을 기록하였다.

결과 려단에서는 10여일동안에 300여㎡의 굴착장과 700여㎡의 버럭처리, 200여㎡의 콩크리트치기를 해제끼는 혁신적성과를 거두었다.

자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할 열의안고 신악갈이 벌쳐나섰다. 려단일군들의 구체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시공군대대에서는 새로운 시공방법을 받아들여 종전과는 달리 철잠판을 먼저 조립하고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여 공사기일을 한달이나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강계시, 만포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종전보다 굴대당 발파회수를 더 늘일 목표를 제기하고 굴착장전투를 벌리였다.

혁신의 불길은 함경남도려단에서도 타올랐다. 70일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더 높은 비약을 일으켜나갈 열의밑에 려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200여㎥의 굴착장과 300여㎥의 콩크리트치기, 1 000여㎥의 버럭처리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함흥시, 정평군대대에서는 합리적인 천공배치와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종전보다 굴진속도를 2배로 높이였다. 버럭처리와 굴콩크리트피복공사를 맡은 돌격대원들은 휴식조립시간을 단축하여 하루동안에 70여㎥의 콩크리트치기를 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다른 려단들에서도 《당의 전설방침과 구상을 높이 받들고 전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련속공격전을 벌려 맡은 대상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지금 황해남도물길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새 기준, 새 기록, 새 기적창조의 불길드높이 당 제7차대회전으로 어머니당에 완공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기 위해 날에날마다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황해남도물길공사에 동원된 함경북도려단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가계획기관과 통계기관을 창립하여주신 7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가계획기관과 통계기관을 창립하여주신 7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 내각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와 최승호중앙통계국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계획, 통계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였다.

로두철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인민이 백두산대국의 자주적존엄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국가계획기관과 통계기관창립 70돐을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 계획통계사업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척되고 강화발전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에 토대하여 주체35(1946)년 3월 6일 첫 중앙계획통계기관을 창립하여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중앙적인 계획통계기관이 창립됨으로써 국가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계획경제의 새 력사, 인민적통계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획통계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획통계사업을 강화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에 기초한 사회주의계획통계사업체계가 마련되고 이 부문 일군대렬이 훌륭히 꾸려졌으며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여 우리의 사회주의계획통계는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올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계획통계사업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심화발전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 《사회주의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사회주의계획통계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 시기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일원화통계체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고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이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실태를 수자적으로 종합분석하는 계획통계사업의 특성에 맞게 물질기술적토대를 원만히 갖추도록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계획통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국가계획기관과 통계기관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데서 전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국가계획기관과 통계기관이 걸어온 70년의 자랑찬 로정은 사회주의계획통계사업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당의 령도가 빛나게 구현되여온 로정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국의 계획통계일군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나라 계획통계사업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사회주의계획통계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보고자는 국가계획기관과 통계기관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답게 더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하며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사관철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사관철하는 혁명적인 투쟁기풍, 사업기풍을 확립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식으로 경제관리문제를 풀어나가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생활력을 높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부문별, 지역별경제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자기 부문,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국가통계기관 일군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는 오늘의 벅찬 현실을 반영한 자료들을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군들이 우리 당의 승고한 인민관을 체질화, 인생관화하여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투쟁진대도 끝까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한가지라도 좋은 일을 찾아하며 혁신적안목으로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발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충정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공동구호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사업이 잘되는 단위들에서는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기 마련이다.

얼마전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을 찾았던 우리는 그에 대해 다시금 확증할수 있었다.

첫 전투의 날에

지난 시기 2.8직동청년탄광은 새로운 전투가 시작될 때마다 높이 세운 계획수행을 위한 대책과 함께 생산문화확립사업을 짜고들어 내밀어 좋은 성과를 이룩해온 단위로 널리 알려졌다.

총정의 70일전투의 시작도 탄광에서는 그렇게 됐다.

지난 2월 23일 아침 탄광의 일군들은 굴진공, 채탄공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갱안의 먼지와 가스중독을 막는데 효과적인 수많은 마스크를 해결하여 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규정의 요구대로 점검을 진행한 생산설비들을 다음교대에 인계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여러 작업장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을 따라세웠다.

그날 저녁이였다.

탄광의 일군은 한 청년이 사회주의경쟁에서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규정된 업간점검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막장에서 굴진하는것을 보게 되였다.

일군은 그에게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인 우리 사회에서 자기 일터와 설비를 알뜰히 거두고 관리하는 과정은 곧 애국의 마음을 자래우는 과정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생산이 바쁘다고 설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버릇을 키우면 애국의 마음에 흠이 생기게 되오. 그렇게 되면 우린 총정으로 이어가야 할 이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수 없소.》

그리고나서 여러 갱들을 돌아보며 탄광의 전반적실태를 료해한 일군은 탕조직의 지도밑에 생산문화확립을 편향없이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을 토론하고 즉시 실천에 구현하였다.

70일전투가 시작된지 얼마 안된 며칠사이에 보다 더 깨끗해진 일터와 고르롭게 돌아가는 설비들의 동음은 신심에 넘쳐 떨쳐나선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주었다.

생산실적의 밑뿌리

천성청년탄광 마을의 둔덕진 못에 자리잡은 리수복청년돌격대에는 많은 자랑이 있다.

탄광의 일군들이 대중을 발동하여 건설한 돌격대병실에는 서로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 어느때나 열람할수 있는 수많은 도서들과 여러가지 문화기재들이 있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훈훈한 잠자리와 하루 24시간 더운물이 가득차있는 목욕탕과 피발실, 락구장도 훌륭히 꾸려져 있다.

평양의 금양봉사망을 방불케 하는 식사실에로 우리를 이끌며 돌격대 대장은 여기서 돌격대원들이 매일 고기와 콩음식, 수산물을 떨구지 않는 푸짐한 식탁을 마주하군 한다고 자랑탐아 이야기했다.

가정에서라면 그 진맛을 느끼지 못했을 저녁오락회도 리수복청년돌격대원들이 하나같이 뽐내고싶어하는 자랑중의 자랑이다.

하루 로동을 끝낸 보람을 안고 저녁마다 모여앉아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을 때면 정법한 탄부들에게 이런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 당의 은정이 고마와 저도모르게 눈시울을 적시며 보답의 땀세를 더욱 굳게 다진다는 이들이다. 하기에 탄광적으로도 돌격대의 생산실적은 언제나 앞자리에 있다는 돌격대 대장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리수복청년돌격대는 조직된지 불과 한해밖에 안된다. 탄광일에 생소한 청년들이 적지 않은것으로 하여 다른 단위들에 비해볼 때 경험이나 기술도 부족하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만은 뜨겁다.

지난 시기 매달 계획을 언제나 앞장에서 수행해온 리수복청년돌격대원들은 70일전투기간에 종전에 비해 매일 계획을 평균 16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년간계획을 4월 중순까지 끝낼것을 결의다지고 70일전투에 진입한 이들은 왕성한 투지와 패기에 넘쳐 교대가 따로 없는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천성청년탄광 리수복청년돌격대 대원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우리는 생산실적의 밑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새기게 되였다.

본사기자 방경찬

문명국건설과 신념

◇ 총정의 70일전투의 열풍이 거세차게 휘몰아치는 내 조국땅에 봄이 왔다. 그와 더불어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 가나 봄철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산적앙양으로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터를 깨끗이 꾸리고 설비, 자재를 알뜰히 다루며 제품의 질과 위생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앞서나가고있는 단위의 경험을 본받고 그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거리와 마을들에서는 문명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이것은 비단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보다 깨끗하고 문명한 환경에서 살며 일하려는 지향이 펼친 풍경이라고만 볼수 없다.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려는 당의 원대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비상히 높아온 속도로 새기적을 창조해가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열의가 안아온 봄풍경인것이다.

◇ 문명국건설의 창조자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는 신념의 장자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꾸리고 문명하게 살아야 사는 맛도 있고 혁명하는 보람도 있습니다.》

총포성이 울부짖는 싸움마당에서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승패가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제대로 거두지 않고 사는것은 승리에 대한 신심이 없는 표현이며 이런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점이 들고 나중에는 사상적으로 변질될수 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최후발악을 다하고있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사업은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생활환경에서부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겠다는 투철한 계급적자각을 지니고 언제나 자기가 사는 고향과 마을, 집과 일터를 깨끗이 꾸리고 혁명적열정과 랑만에 넘쳐 전투적으로 생활하는것이야말로 조선의 혁명가들의 생활방식이고 투쟁기풍이라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다.

◇ 사회주의문명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모든 일군들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깜빠니야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강대성에 대한 시위, 우리 위업의 정당성이 옳바로 실증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는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애국의 열기를 더 한껏 터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자.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자!

영광의 고장을 더욱 아름답게

황주군 침촌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과 거리, 집과 일터를 비롯한 생활환경을 새시대의 맛이 나게 문화적으로 깨끗하게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황주군 침촌협동농장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이다.

협동농장에서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영광의 고장을 더 잘 꾸리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혁명사적교양실과 수십동의 현대적인 살림집건설, 제1작업반 탁아소를 새롭게 꾸리기 위한 사업…

물론 당면한 영농전투로 드바쁜 속에서 이처럼 방대한 목표를 수행한다는것은 헐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영광의 땅을 더 잘 꾸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려는 총정의 열의로 꽉 차있다.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경험도 쌓았다.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농장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군일군들의 방조속에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탁아소도 훌륭하게 일떠서고 대중체육을 위한 야외배구장도 번듯하게 닦아졌던것이다.

농장의 일군들은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영광의 땅인 자기 고장을 더 훌륭히 꾸리는 사업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는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시작부터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면서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나갔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도 앞장에서 달려 당 제7차대회를 맺맺이 맞이하자.

일군들인 차성영, 한진봉무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준비단계에서부터 건설에 필요한 많은 량의 자재들이 확보되였다. 농장일군들은 유치원, 탁아소, 작업반들을 비롯하여 농장의 건설 및 보수대상들을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실태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빠른 시일안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패기있게 진행하고있다.

공공건물뿐아니라 봄철에 들어서면서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가고있다.

농장에서는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면서 마을과 일터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더 환하고 알뜰하게 꾸려갈 높은 목표밑에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70일전투기간에 높은 영농성과와 함께 영광의 고장을 더 잘 꾸린 자랑을 안고 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불같은 열의에 의해 침촌협동농장의 면모는 또 한번 크게 변모될것이다.

본사기자 주령봉

더욱 변모되는 일터

순천구두공장에서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총정의 70일전투를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는 속에서도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고 건물들의 벽체도 보수하여 공장의 면모를 더욱 아담하고 환하게 꾸려가고있다.

종업원모두가 구내도로에 대한 관리를 정상화하고 건물들을 손색없이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로농통신원 장정숙

높이 세운 전투목표, 환해지는 마을

모란봉구역 북새동에서

모란봉구역 북새동 일군들과 주민들이 총정의 70일전투기간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동에서는 얼룩 남짓한 기간에 수종이 좋은 200여그루의 나무들을 동주변에 정성껏 심었으며 3월이 시작되는데 맞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봄철위생문화사업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반에서는 위생문화사업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 5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총정의 70일전투와 더불어 시작된 이 동의 위생문화사업은 류다른 분위기속에서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김명덕, 허정실동무를 비롯한 동일군들과 인민반장들은 살림집사이의 길도 다 포장하고 주변정리도 알뜰하게 하며 록음이 우거지게 하여 공원안에 살림집들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겨보며 매 인민반별 70일전투결의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웠다.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변모시킬 한마음안고 이들은 혁명사적교양실전설과 8만 5000㎡의 외장재철하기, 찔음길포장 및 보수, 잔디양묘장꾸리기 등을 단계별로 정해놓고 70일전투기간에 심멸전의 방법으로 무조건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주민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전하는 표식비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는것으로 70일전투를 시작한 동일군들은 인민반별로 담당구간을 정확히 정해주고 인민반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고있다.

전투목표들이 제 날자에 드팀없이 수행되는 속에 얼마전 동일군들은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기 위한 인민반별호상간 위생문화판정사업을 진행하였다.

동안의 인민반들이 다 그러하지만 8, 33, 40인민반들을 찾은 많은 사람들속에서는 살림집과 놀이터 등을 흠잡을데 없이 알뜰하게 꾸리고 정상관리하고있는 인민반원들의 깐진 일분대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6인민반에서와 같이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맞게 집집의 창문마다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여나게 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을 예견성있게 잘 짜고들면서 생활의 정서가 더욱 흘러넘치는 화목한 인민반으로 꾸려가는 모습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결국 판정에서는 좋은 경험들이 교환되고 이룩된 성과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말없는 경쟁이 벌어져 주민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현재 이곳 동의 위생문화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다녀가신 마을에서 살고있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이번 70일전투기간 자기가 사는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동일군들과 주민들의 불같은 열의에 의해 동의 면모는 나날이 달라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활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려간다.
—인민대학습당에서— 본사기자 김종혼 찍음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은정어린 생일상

어머니당의 크나큰 품속에서 지식인들의 삶이 더욱 빛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든번째 생일을 맞이한 함흥수리동력대학 연구사인 인민과학자원사 교수 박사 서병화와 일흔번째 생일을 맞이한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 연구사인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박룡응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일제의 억압과 착취밑에서 짓대받는 막로동자의 아들로 태여난 서병화는 해방후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배움의 꿈을 꽃피우고 수리공학부문의 권위있는 과학자로 성장하였다.

그는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탐구의 길에서 한생을 바치며 대규모수력발전소와 간석지, 항만, 하천, 관개시설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많은 교과서와 참고서, 론문들을 집필하고 제자들을 능력있는 학위학직소유자들로 훌륭히 키워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그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대회들에 불러주시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여주시였다.

이국땅에서 태어난 박룡응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는 어머니당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안고 수십년간 후대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헌신하였다.

이 나날 국보적가치가 있는 도서 《김일성화전서》, 《김정일화전서》출판과 불멸의 꽃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태양의 꽃들이 만발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로과학자들과 가족, 친척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당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혁신자들의 어머니로 사는 보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70일전투의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기행길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철야전투가 벌어지고있는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장으로 이어졌다.

말그대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그 모습이 일신되고있는 김일성경기장에서 우리는 혁신자들의 어머니로 사는 녀인들을 만나게 되였다.

불꽃튀는 전투장의 어머곳에 자그마한 작업장을 만든 그들은 건설자들에게 신발도 수리해주고 성의껏 리발도 해주고있었다. 녀인들의 따뜻한 손길은 백열전을 벌리는 전투장에 생신한 활력을 부어주고있었다.

건설자들 누구나 어머니라고 스스럼없이 찾는 그들은 보통강구역 녀맹돌격대원들이였다.

지난 시기 과학기술전당건설에서 녀맹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2차례나 받아안은 이들이 오늘은 또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장에서 총정의 70일전투의 나날을 이어가고있었다.

아침마다 황금벌역과 락원영화관 앞도로를 비롯한 구역의 곳곳에서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출근길에 오른 근로자들을 고무해주던 낯익은 모습들이였다.

건설자들을 도와 보래운반작업에 떨쳐나선 그들의 절싼 일솜씨에 건설자들은 누구나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붉은거리2동의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이 진행하는 경제선동은 참가했던 어제날의 중학생도 있었고 우리 조국의 력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이제날의 70일전투에 참가했던 공로자들도 있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나는 무엇을 더 할수 있을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고 한가지라도 좋은 일을 더 찾아하기 위해 애쓰는 보통강구역 녀맹원들의 열의에 떠받들려 전투장에서는 혁신자들의 대렬이 나날이 늘어나고있었다.

쥐여보면 자그마한 손들이지만 조국을 떠받드는 깨끗한 량심의 무게가 실려있어 한가정의 살림만이 아닌 조국의 재부를 창조하는 거창한 전투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는것이였다.

구역녀맹위원장 송양란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는 건설자들모두가 우리 녀맹원들을 보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위원장어머니, 선동원어머니, 리발사어머니, 신발수리공어머니라고 정을 담아 불러줄 때면 우리들은 그들의 친어머니라면 무엇을 더 해주었을가 하고 곰곰히 생각해보군 합니다. 그렇게 한가지 또 한가지 일감을 찾아내는것이 곧 어머니구실을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혁신자들의 어머니로 사는 녀인들, 이들이야말로 총정의 70일전투가 낳은 또 하나의 혁신자들이 아니겠는가.

리신향

20여년을 하루같이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초급일군들속에는 숙천청년과수농장 운정지구 제3작업반 반장 렴광현동무도 있다.

농장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는 20여년을 성실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과학농사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학습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그는 모두가 작업반의 실정에 맞게 파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여 파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떠밀어주고있다. 또한 그는 작업반원들을 발동하여 작업반의 집짐승우리를 종전보다 크게 늘이고 많은 집짐승을 길러 과수밭의 지력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그는 작업반원들의 생활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살림집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을 해결해주고 생활상애로를 느끼고있는 여러명의 작업반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어 많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로농통신원 한영일

단천시의 녀맹원들

새땅찾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온 나라 전체 인민이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철야전군에 떨쳐나선 이때 단천시의 녀맹원들이 10정보에 달하는 새땅을 찾아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단천시녀맹위원회 일군들은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쓸모없이 버림받던 통연지구의 진펄을 개간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시안의 녀맹원들을 자연개조전투에로 불러일으켰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을 열의로 가슴 불태우는 수많은 녀맹원들이 새땅찾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시녀맹위원회일군들은 먼길을 오가며 현지탐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어러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가지였으며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대중의 정신력이 충족발되도록 하였다.

시녀맹위원회일군들은 붉은기, 속보판을 비롯한 수백점의 선동기재들과 각종 운반수단, 함마와 정대 등 작업공구들을 자체로 마련하였다.

새땅찾기전투장으로 달려간 단천시의 녀맹원들은 불리한 일기와 작업조건에서도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을 불태우며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수많은 녀맹원들이 혁신자로 자랐고 전투장에 구슬땀과 지원의 마음을 함께 바쳐갔다.

어둠을 밟히며 곳곳에서 타오르는 우등불열으로 젖은 작업복이나 신발을 가져가는 녀성들은 없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시안의 연 3만 7000여명의 녀맹원들이 새땅찾기전투장으로 달려갔다.

방송선전차를 앞세우고 붉은기를 휘날리며 통연지구에 도착한 녀맹원들은 만리마속도로 내달리는 대고조전투장들에 마음을 얹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려 70일전투의 나흘동안에 수백m의 뚝을 보강하고 4만㎡의 토량을 운반하여 찾아낸 새땅에 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70일전투가 시작되기전 10여일간에 진행한 작업량과 맞먹는 방대한것이다.

10정보에 달하는 새땅이 원료기지로 전환됨으로써 시안의 기초식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보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였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5종에 2만 5천여점의 소농기구를 성의껏 마련하였으며 1만 8천t의 질좋은 유기질비료와 수십톤 달하는 거름을 시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애국충정의 한마음안고 70일전투의 나날을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에서는 지금 날에날마다 혁신적성과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일

인민보안부대표단이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만났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최부일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보안부대표단이 4일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분냥 워라쩓동지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분냥 워라쩓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분냥 워라쩓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변함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라오스인민은 조선인민이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발전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라오스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영원히 강화발전되기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여 조선을 사회주의한길로 이끄시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하였다.

여기에는 라오스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라오스안전보위상 등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인민보안부대표단과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회담

인민보안부대표단과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의 회담이 4일 비엔티안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최부일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보안부대표단 성원들과 라오스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쌈매우 찌라웡 안전보위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들사이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안전보위성사이의 호상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였다.

이날 라오스안전보위상은 인민보안부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극악한 대결광신자, 만고역적에게 차례질것은 가장 비참한 종말뿐이다

최후결전의 판가리시각은 왔다

철천지원쑤 미제와 천하에 돌도 없는 사악한 박근혜역적무리가 우리의 지제력을 감히 시험하면서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와 합법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들며 남강도적인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해내는데 앞장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그것도 성차지 않아 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대규모적이고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강행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이미 숱한 특수작전무력들과 최신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인 내외호전광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 혁명의 수뇌부와 《제재붕괴》를 노린 천하무도한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하겠다고 거리낌없이 줴쳐대고있다.

미제의 남강도적인 침략야망과 괴뢰호전광들의 북침기도가 더없이 명백해진 이상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불가피한것으로 되였다. 얼마전에 발표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은 노호한 천만군민의 천백배 보복의지를 그대로 담은것으로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에게 보낸 최후통첩이다. 상식도 리성도 없고 부정의의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침략자, 호전광들은 오직 정의의 힘으로 짓뭉개버려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며 의지이다. 기다리고기다리던 최후결전의 판가리시각은 드디여 왔다.

이 땅에서 침략과 도발의 근원을 송두리채 뽑아내는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정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권리행사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와 위성발사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이다.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권국가라면 마땅히 행사하게 되여있는 정화적인 우주개발권리마저 범죄시하고 자위적인 핵억제력보유를 국제범위밖으로 몰아대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소동을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

더우기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최대규모로 강행하려 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저들의 범죄적인 경제《제재》를 군사적공세에로 이행시켜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침략하려는 위험천만한 전쟁도박이다.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나라의 최고리익이 위협당하는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멸적의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며 북침광풍을 더욱 살벌하게 일으키는것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미국이 말로나마 《년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정당화하던 합동군사연습의 간판마저 서슴없이 제던지고 그 무슨 《족집게식타격》을 운운하며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5대전략무기》들을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고있는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미국의 더러운 전쟁머슴군인 괴뢰역적패당도 우리의 핵 및 전략로케트시용을 차단할 기도밑에 《참수작전》과 《작전계획 5015》의 세부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최대최악의 정치군사적도발을 걸어오고있다.

《참수작전》과 《제재붕괴》의 어리석은 개꿈을 이루어보려고 지랄발광하는 적들의 히스테리적광기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폭발직전의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조성된 현실은 우리가 북침에 환장해 미쳐날뛰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과 총결산할 때가 도래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손톱만큼이라도 해치려는 그 어떤 도발행위도 무자비한 징벌을 면할수 없다. 선제타격은 미국과 괴뢰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은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미쳐 정신을 차릴새없이 단숨에 남조선전역을 통채로 타고앉는 벼락같은 속전속결전, 하늘과 땅, 바다는 물론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립체전으로 도발의 본거지, 침략의 아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초토화해버릴것이다.

우리 혁명무력의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은 이미 《참수작전》과 《족집게식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작전수행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 대결과 전쟁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틀부시고 괴뢰한 원한을 속시원히 풀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심이며 의지이다.

적들이 뽐내는 그 어떤 과시성, 위협성의 각종 전략전술무기들도 우리의 섬멸적타격앞에서는 파고철더미에 불과하다. 남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해 세기를 두고 준비해온 우리 식의 타격전은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보복전으로 될것이며 만가지 악의 소굴이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재가루로 만들어놓을것이다.

전쟁미치광이들을 혼적도 없이 깨끗이 쓸어버리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는 정화를 사랑하며 민족의 운명이 달린 북남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하기에 우리는 괴뢰당국에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적참화를 몰아오는 무모한 전쟁책동을 중지할데 대하여 한두번만 충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괴뢰집권세력은 우리의 선의와 아량,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야망을 드러내며 북침핵전쟁도발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박근혜는 저들의 군사적도발이 미제를 겨냥한 우리의 조준경안에 제발로 들어오는 자살적인 망동이라는것을 깨닫고 분별있게 처신했어야 옳다. 하지만 역도는 뒤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용단도 없는 주제에 《단호》하고 《용감》한척이라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며 미국상전을 믿고 가소롭게도 《단호한 응징》과 《선제공격》따위를 운운하고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격이듯이 역적무리는 오직 불로 다스려야 한다. 조선민족으로 살기를 그만둔지 이미 오랜 박근혜역적패당에게는 그 어떤 선의와 아량도 인내심도 베풀 필요가 없으며 지켜볼것도 주저할것도 없다. 박근혜와 같이 동족을 겨냥하여 무분별하고 못난 짓거리를 하다가는 빠다귀도 추리지 못한다는것을 남조선에서 권력을 노리고있는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의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은 불가피하다.

지금 최대의 적동상태를 유지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반역의 무리인 박근혜역적패당을 씨도 없이 쓸어버릴 순간만을 기다리고있다.

도발자, 침략자들은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악몽에 사로잡혀 단 하루, 단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할것이다.

심 철 영

림종을 앞둔자의 단말마적인 발악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3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는 날강도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박근혜역적패당은 물보기 전에 바지부터 벗는 격으로 그 무슨 《성명》이라는것을 내고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니, 《단호한 메세지》니 뭐니 하며 허가 돌아가는대로 너덜대고있다. 그 짧은 꿈에 서방을 만난 화냥년그대로이다.

박근혜와 같은 비리지 한마리가 조선녀성의 성과 이름을 달고 인륜을 더럽히다 못해 동족을 모해압살할 흉심밑에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감히 우리에게 도전해나선것은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바로 거기에 사악하기 그지없고 무덤속에 처박힐 때까지 영영 고칠수 없는 역도의 추악한 대결적본성이 그대로 비껴있다.

지금 온 민족과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있다.

그런데 박근혜패당은 동족이 거둔 사변적성과들에 대해 누구보다 배아파하면서 심술사납게 놀아대고있다. 《북핵이 남쪽을 겨냥하고있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것은 우리뿐》이라고 주절대며 세끼낳은 암캐마냥 앙앙대는가 하면 국제공조로 《북정권이 생존할수 없고 붕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사나운 독이발까지 드러내고있다.

세계적인 우주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우리 공화국이 쏘아올린 지구관측위성이 정상적으로 자기 궤도를 돌고있다고 주장하였는데도 한사코 《장거리탄도미싸일》이라고 우겨대며 외세의 사타구니에 매달려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내는데 앞장선 역적패당의 망동은 정신착란증에 걸린 대결병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추태이다. 그 무슨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니, 《뻐저린 대가》니 하고 악청을 돋구며 뒤골목의 심술망나니도 울고갈 천하의 못된짓만 골라하는 박근혜역도의 대결망동은 외세에게 빌붙어 동족을 압살해보려는 반민족적기도의 발로로서 력대 그 어느 괴뢰집권자도 감행하지 못한 극악무도한 반통일대역죄가 아닐수 없다.

괴뢰패당이 미제침략군의 특수작전무력까지 끌어들여 그 무슨 《참수작전》이니, 《제제붕괴》니 하고 무엄하게도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고 날뛰면서 사상 최악의 반공화국《제재결의》까지 꾸며낸것은 정세를 전쟁의 최극단에로 몰아가는 실로 무분별한 도발행위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광명성—4》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한껏 열이 나가 초상난 집 개꼴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주접스레 찾아다니며 동족압살을 노린 국제공조를 구걸하던 박근혜역도였다. 그러던 역도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대조선《제재결의》가 조작되자 비명횡사 비단얻은 격으로 어쩔바를 몰라하며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남조선을 망하게 하고 제자신도 죽게 된데서 국도의 불안을 느낀자의 최후발악, 림종을 앞둔 가련한 늙다리의 마지막몸부림일뿐이다.

개인에서 상이가 뻐여져나올리 없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세상만사를 제 생각대로만 속단하며 코흘리개보다 못한 라사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려고 설레발치는 박근혜역도에게 명백히 해둘것이 있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 자력자강의 힘으로 승리의 전통을 빛내여온 우리는 괴뢰패당이 미국상전과 함께 요란스레 지껄여대는 《제재》라는것을 벼룩의 잔등에 난 뜸자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남조선괴뢰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로골적으로 침해하는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르게 될것이다.

대문밖이 저승길인 주제에 미친년 널뛰듯 새빠진 《제재》나발을 불어대며 감히 누구를 놀래워보려고 날뛰는 박근혜역도보다 더 가련한 인간추물은 없다.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보복전은 시작되였다. 외세를 등에 업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허덤비는 역적무리들은 종국적멸망의 운명을 절대로 면할수 없다.

세계는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감히 해치려드는 도발자들에게 어떤 비참한 말로가 차례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박 철 준

가차없이 짓뭉개버릴것이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가 2월 26일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어리석은 도발책동을 가차없이 짓뭉개버릴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한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히스테리적인 전쟁도발책동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가슴 끓이고있다고 밝혔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통쾌한 완전성공에 얼혼이 빠진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은 최후발악을 하면서 미쳐날뛰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수뇌부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는 그 즉시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일념에 불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하늘에서 태양을 끌어내리겠다는것보다 어리석고 미련한짓은 없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성원들이 조국인민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적대세력들의 도발책동에 대하여 추호의 용서도 없이 파감히 맞서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가소로운 통합놀음

2월 29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괴뢰합동참모본부가 《북 핵 및 미싸일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서 북침선제공격체계인 《킬 체인》과 저들식의 미싸일방위체계를 통합하여 K2작전수행본부를 내오고 그것을 공군작전사령부에 소속시키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에 의지하여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타격하려는 위험한 음모가 깔려있다.

그러나 괴뢰호전광들이 아무리 본주탕을 피워도 모든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최강의 우리 혁명무력앞에서는 삶은 호박에 불과하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려고 발광하는 역적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천둥에 놀라 곤두박질한 민충이꼴

박근혜역적패당이 유엔무대에서 미국의 삼살개로 꼬리치며 우리의 자주적권리에 함부로 도전하는 《제재결의》조작에 발벗고나섰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래 괴뢰들에게는 동족의 위성이 하늘을 날고 민족의 힘이 강해지는것이 그렇게도 못마땅한가. 썩은 동태눈이 돼서 위용차게 지구를 도는 우리의 위성을 보지 못하고 시라소니처럼 놀아대는가. 하기야 괴뢰들은 이 세상에 뻐여져나올 때부터 미국이 없이는 한시도 연명할수 없는 기생충이였으니 달리 될수는 없다. 주체위성발사의 굉음에 허둥대는 미국과 괴뢰들의 꼬락서니는 그야말로 쑥대풀에 매달렸다가 천둥에 놀라 곤두박질한 민충이꼴 한가지이다.

이런자들의 거수기가 되여 대조선 《제재결의》니 뭐니 하고 놀아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라는것은 싸구려장사군들이 모여 떠들어대는 잠마당보다도 못하다.

우리는 그런 가소로운 《제재》놀음을 눈곱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한두번만 조작했는가. 그러나 적대세력의 그 어떤 도전도 우리의 전진을 막지 못하였다. 우리는 얼마전에도 보란듯이 주체위성을 쏴올려 망상가들의 《제재결의》라는것을 휴지장으로 만들었다.

앞으로도 우리의 위성은 더욱 장쾌하게 푸른 하늘에 자주의 비행운을 새길것이다.

우리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민족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한 위성발사영웅들의 전투정신으로 70일전투에서 통장흔을 부르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청진중앙동물원사료보장수산사업소 지배인 김 성 원

선군조선의 위력과 본때를

괴뢰들이 이번에도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돌격대로 나서서 대조선 《제재결의》조작에 기승을 부린것은 민족을 반역하고 역적패당의 본성은 죽어도 고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조선민족의 피가 단 한방울이라도 흐르고있다면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그처럼 맞장구를 치며 팔을 걸어붙이고 들아칠수 있는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동족이 보유한 핵억제력과 우주과학기술이 그렇게도 《위협》으로 보이고 무서우면 이에 벌리 대양건너 양키들의 땅에 가서 편안하게 살것이지 어째서 한사코 이 땅의 공기와 물을 마시며 지랄발광하고 민족을 욕되게 하는가.

그래 괴뢰들은 그따위 《제재》놀음으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선군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제재》소동을 자력자강으로 짓부시며 안아온 민족사적사변들이다. 위성 하나 제손으로 우주에 못 올려보내 남에게 비실비실 허리를 굽히는 주제에 온 세상이 자주의 성새로 우러러보는 우리를 어째보려 하니 이야말로 비루먹은 강아지새끼가 범잡을 꿈을 꾸는 격이 아닌가.

적대세력의 발악적도전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는 지금 우리는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우리 대학인의 전체 교직원들은 애국충정의 열정으로 불타는 정보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것으로 과학기술강국건설과 국방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에게 선군조선의 위력과 본때를 다시한번 톡톡히 보여주겠다.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교원 리 혜 순

복수의 총대는 선언한다

어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도박놀음으로 우리의 멸적의 조준경안에 스스로 찾아든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이 오늘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남강도적인 대조선 《제재결의》를 조작해내여 우리의 자주권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섰다.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을 금할수 없다.

그 《제재결의》라는것이 남이 잘되는것을 배아파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못된 속심을 품고 반공화국고립압살이라는 다 꿰진 이불속에 보여 조작해냈을것만은 분명하다. 하긴 썩은 고기에 벌레난다고 애당초 정화적인 우주개발도, 자위적인 핵억제력도 가려볼줄 모르는 무지한자들이 달리야 처신했겠는가.

도대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온전한 사고방식과 주대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도 없는가. 미국의 장권과 그 주구에 불과한 남조선괴뢰들의 장단에 놀아나며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꾸며낸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가련하고 불쌍하기만 하다.

사실 이번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조작해낸 《제재결의》는 별로 놀랄것도 새로운것도 아니다. 도발자들이 그따위 문서장을 열개, 백개 꾸며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침략자들에게 맞서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 우리의 조치가 천만번 정당했다는 확신만을 굳게 해줄뿐이다.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다. 존엄높은 선군조선의 자주권을 감히 해치려고 날뛰는자들은 미처 후회할 시간적여유도 없이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라고.

아직까지 개꿈에서 깨여나지 못한 미국과 상전의 말바닥을 핥으며 기고만장해 날뛰는 박근혜역적패당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 천만군민의 적개심은 활화산처럼 폭발하고있으며 그 무서운 뢰성은 백악관과 청와대를 사정없이 들부시는 불벼락으로 될것이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직장장 원 철 선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괴뢰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이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범죄적인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여 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조선반도를 항시적인 긴장속에 몰아넣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이 내외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상 최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연습을 앞두고 이미 남조선에는 미군의 육, 해, 공군, 해병대의 특수작전무력들이 투입되였다고 담화는 폭로하였다.

담화는 미국이 매해 합동군사연습을 벌릴 때마다 늘어놓던 《년례적》인 《방어훈련》따위의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이번 연습을 통해서 《작전계획 5015》의 핵심항목인 북의 핵 및 전략로케트시용을 차단하기 위한 《참수작전》과 《제거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하겠다고 떠들어댐으로써 저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고 규탄하였다.

담화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내진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조선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목적을 어느것 하나 실현할수 없게 된 미국이 군사깡패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담화는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전체 간사들의 치솟는 의분을 담아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합동군사연습을 조국의 평화와 안전,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을 짓밟고 조국땅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대범죄행위로 락인찍고 이를 전결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금 미국에는 북침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는것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대미추종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똑똑히 명심하고 미국과 함께 벌리려는 합동군사연습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호전광들의 북침도발책동을 분쇄하는것은 초미의 과제이다.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는 하나로 굳게 뭉쳐 미국의 흉악한 대조선침략야망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우리는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적극 합세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온갖 재앙을 몰아오는 정와대마녀 단호히 심판하자

괴뢰패당의 반동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추악한 매국역적의 집권 3년간 죄악을 고발한다(4)

북침광기로 민족을 우롱한 치마두른 호전광

현 괴뢰집권자의 3년간 행적에는 동족압살흉심에 사로잡혀 외세와의 공모결탁으로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여온 죄악에 찬 흔적도 뚜렷이 찍혀있다.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미국의 품에 안겨들어 동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남조선을 외세의 북침핵전초기지로 내맡긴 박근혜역도의 반민족적범죄에 온 겨레는 치를 떨고있다.

박근혜는 《대통령》벙거지를 뒤집어쓰기 전에 벌써 자기의 등을 밀어주는 미국상전에게 북침을 확약한 극악한 대결악녀이다. 그는 《취임사》라는데서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에 대해 횡설수설함으로써 선행자를 릉가하는 대결전쟁《정권》의 출현을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해마다 외세와 함께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들은 북침전쟁도발에 환장한 그의 호전적정체의 집중적발로이다.

역도가 취임한지 불과 3일후 북침공격연습, 핵시험전쟁으로 악명높은 미국과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나선데는 외세가 추구하는 북침전쟁의 돌격대, 총알받이가 되여서라도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보려는 어리석은 야망이 깔려있었다.

개는 나면서부터 짖는다고 금방 청와대를 타고앉은 미국의 충견이 다르게 처신할수 있었겠는가. 치마를 두른 역도가 남조선에서 북침의 총포성이 순간이라도 멎을가봐 안절부절을 못하며 상전과 야합하여 각종 불장난소동들을 끊임없이 벌려 온 한해동안 전쟁화약내를 짙게 풍긴것은 동족대결에 미쳐날뛴 력대 괴뢰통치배들도 아연실색할 정도였다.

집권 첫해에만도 박근혜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상전을 붙들고 조선동서해상에서 련일 전쟁연습들을 벌려놓았다. 당시 미제침략군의 항공모함타격집단과 핵잠수함이 투입된 가운데 내외호전광들이 동서해상에서 벌려놓은 도발적인 훈련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기습적인 선제타격으로도 부족하여 괴뢰역도는 미국상전과 함께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에 맞도장을 눌러 북남사이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전면전쟁으로 확대할 기도를 드러냈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에 미국본토의 핵무력까지 끌어들일 심산으로 《맞춤형억제전략》을 들고나오고 그 무슨 《북의 핵,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모험적인 《4D작전계획》이라는것까지 짜놓은것은 역도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려고 얼마나 지랄발광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박근혜역도의 북침전쟁도발광증은 집권 3년이 된 지금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역도는 지금껏 품어온 북침야망을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한사코 실현해볼 어리석은 계책밑에 감히 《참수작전》과 《제제붕괴》따위를 뇌하며 미친개처럼 날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특수작전무력이 남조선에 물밀듯이 쏟아들고 내외호전광들의 대규모공격무력이 뻐젓이 전개된 지금의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이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역도가 미제침략군의 특수작전무력까지 끌어들여 그 무슨 《참수작전》이니, 《제제붕괴》니 하고 무엄하게도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고 날뛰면서 사상 최악의 반공화국《제재결의》까지 꾸며낸것은 정세를 전쟁의 최극단에로 몰아가는 실로 무분별한 도발행위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광명성—4》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한껏 열이 나가 초상난 집 개꼴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주접스레 찾아다니며 동족압살을 노린 국제공조를 구걸하던 박근혜역도였다. 그러던 역도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대조선《제재결의》가 조작되자 비명횡사 비단얻은 격으로 어쩔바를 몰라하며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남조선을 망하게 하고 제자신도 죽게 된데서 국도의 불안을 느낀자의 최후발악, 림종을 앞둔 가련한 늙다리의 마지막몸부림일뿐이다.

개인에서 상이가 뻐여져나올리 없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세상만사를 제 생각대로만 속단하며 코흘리개보다 못한 라사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려고 설레발치는 박근혜역도에게 명백히 해둘것이 있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 자력자강의 힘으로 승리의 전통을 빛내여온 우리는 괴뢰패당이 미국상전과 함께 요란스레 지껄여대는 《제재》라는것을 벼룩의 잔등에 난 뜸자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남조선괴뢰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로골적으로 침해하는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르게 될것이다.

대문밖이 저승길인 주제에 미친년 널뛰듯 새빠진 《제재》나발을 불어대며 감히 누구를 놀래워보려고 날뛰는 박근혜역도보다 더 가련한 인간추물은 없다.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보복전은 시작되였다. 외세를 등에 업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허덤비는 역적무리들은 종국적멸망의 운명을 절대로 면할수 없다.

세계는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감히 해치려드는 도발자들에게 어떤 비참한 말로가 차례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박 철 준

다 늙어빠진 조글조글한 낯짝을 가지고 외세의 북침전쟁사환군으로 나선 박근혜역도가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물거품이 되여 비린 오늘에 와서까지 상전의 마지막전쟁도박에 또다시 추악한 몸을 내맡긴것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파괴, 긴장격화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지난 3년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쏟아든 미국의 최신전쟁장비들도 현 괴뢰집권자의 호전적정체를 폭로해주는 증거물이다. 역도는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에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은 물론 《B—2》, 《B—52》핵전략폭격기, 《F—22》스텔스전투기 등 미국의 전략핵타격수단들을 닥치는대로 끌어들였다.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뛴 박근혜역도의 3년간 죄악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하지만 명백히 알수 있는것은 력대 괴뢰통치배들치고 박근혜역도만큼 대결과 전쟁을 부르짖은 호전광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외세의 북침핵전쟁마차를 정신없이 끌며 자나깨나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려고 발광하는 극악한 대결광 박근혜역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언제가도 공고한 평화를 누릴수 없고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하듯이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새 전쟁도발에 악을 쓰며 매달리는 박근혜역도를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우리의 평화적우주개발은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우리 국가의 자존과 권위, 강용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싣고 광활한 우주만리에 황홀한 비행운을 그리며 날아오른 주체의 위성 《광명성—4》호가 자기의 궤도, 조선의 궤도를 따라 기운차게 돌고있다.

엄연한 이 사실을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우리가 거듭 성과에 대해서는 눈색안경을 끼고 보고 대하며 어떻게 하나 왜소화하고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나 몸살을 앓군 하던 나라들까지 이것을 인정하고있다. 지어 미국에서도 우리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궤도에 진입하여 정상가동하고있다는 소리가 나오고있다.

미국 워싱톤에 본부를 두고있는 비영리단체인 《걱정하는 과학자모임》의 고위인물은 궤도에 오른 2개의 비행체를 추적중이라고 한 미합동우주작전본부의 발표내용을 전하면서 조선의 위성으로 추정되는 위성이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있다고 하였다.

미전략사령부도 우리의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였다는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자료를 받아 실시간으로 위성을 추적하는 인터네트싸이트에도 우리 위성의 자리길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고 한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철두철미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목적으로 발사되였다는것이 명명백백하게 실증되였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기술에 놀라움을 표시하고있으며 우주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 공화국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며 축하와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과학기술적성과를 헐아과하며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그것이 이제는 도를 넘어 전례없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마저 비법화하는 날강도적인 적대행위를 감행하는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우리는 결코 놀라지 않는다. 원래부터 우리의 평화적인 우주개발활동은 미국을 비롯한 온갖 훼방군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 진행되여왔다.

미국은 지난 시기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였을 때에도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법석 떠들며 복잡하게 놀아댔다. 세계가 공인하고있는 우리의 위성발사의 평화적성격을 한사코 부인하고 장거리미싸일발사라고 억지를 쓰며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면 안된다는 강도적인 요구를 유엔에 내리먹이군 하였다.

우리의 위성발사는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조치로서 그 누가 이래라저래라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우주조약 제1조에는 우주의 탐사와 리용은 모든 나라들의 리익에 맞게 실현되며 우주공간은 인류공동의 재부이라는데 대하여 명기되여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너도나도 뛰여들고있다.

우리 나라도 바로 이러한 세계적추세에 맞게 평화적우주개발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 행사이다.

유엔헌장의 그 어디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국제법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를 빼앗을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문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도 우리 나라만은 하면 안된다고 하고있다.

그들이 내든 근거라는것을 보면 우리가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여 위성을 발사하였기때문에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초보적인 론리도 갖추지 못한 궤변에 불과하다.

만일 그들의 론리대로 우리가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여 위성을 발사한것이 문제시된다면 미국을 비롯하여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모두가 문제시되여야 한다. 특히 군사위성을 포함한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한 미국부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한것으로 문제시되여 제재대상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력사에 9 000여차례의 위성발사가 진행되였지만 위성발사를 하면 안된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는 단 한번도 나온적이 없다. 서방언론들까지도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규정하는 미국의 처사를 놓고 이중기준이라고 혹평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독관치기를 하면서 저들에게 고분고분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위성을 쏘아올리든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든 묵인하면서도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은 평화적위성발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이다.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우주개발권리를 란폭하게 유린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는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전략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위성을 만들고 쏘아올리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이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또 우리의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우주개발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며 선군조선의 합법적권리이다.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그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우주를 향하여 련이어 힘차게 날아오를것이며 우리 공화국은 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개가를 계속 올릴것이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으며 그 누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자강력이라는 위력한 무기가 있다.

국제적압력으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제재와 봉쇄로 시간을 끌면서 우리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것은 해와 별이 자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것과 같은 허황한 개꿈이다.

시간도 정의도 다 우리의 편에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질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은 시간이 증명해줄것이다.

미국은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에 자위적조치들로 끝까지 강경대응해나갈것이다.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소동을 짓부시고 강성국가를 건설하는가를 보게 될것이다.

리 학 남

자주적권리를 비법화하는 대결광기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우리 인민에게 정면도전해나섰다.

무엄하게도 우리의 성과적인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발사를 걸고 복닥소동을 일으키고있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 자주적권리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권국가라면 마땅히 행사하게 되여있는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권리마저 범죄시하고 자위적인 핵억제력보유가 국제법위반으로 된다고 몰아붙이고있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핵보유와 위성발사가 문제시되여야 한다면 마땅히 미국부터 문제시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핵을 먼저 가진것도 미국이고 원자탄을 사용하여 인류의 머리우에 무서운 핵참화를 들씌운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핵을 가진 미국의 행적은 또 얼마나 더럽고 피비린내나는것인가.

핵시험회수를 놓고보아도 미국은 우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할수 없게 되여있다. 우리는 이번까지 단 4번의 핵시험을 진행하였지만 미국은 무려 1 000여차례나 진행하였다.

우리의 위성이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여 발사되였기때문에 문제시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론법대로라면 미국을 비롯하여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 모두가 문제시되여야 한다.

탄도미싸일기술로 1 9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올린 미국은 물론이고 16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올린 일본이 응당 범죄시되여야 한다.

이처럼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하였으며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지 않고 위성을 하늘높이 떠올리는 방법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나라들이 제가 발사한것은 위성이고 우리가 발사한것은 장거리미싸일이라는 식으로 우겨대는것은 자기기만이다. 이를 두고 서방언론들까지도 같은 방식의 위성발사인데 북이 하면 미싸일발사로 되고 다른 나라가 하면 위성발사로 된다는것은 납득할수 없다. 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규정하는 미국의 처사는 명백한 이중기준이다고 비평한바 있다.

우리 공화국이 하는 모든것을 무작정 대결관념에서 보고 대하는것이 체질화된 미국은 평화적인 우주개발도 저들을 위협하는 군력강화에로 이어질수 있다는 정신착란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한사코 우리의 핵보유를 문제시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핵보유를 문제시하기 전에 그를 초래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핵위협부터 응당 문제시되여야 한다.

미국이 1950년대 후반기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 수는 1970년대 중엽에 벌써 1 000여개에 달하였다. 남조선은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화하였다.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핵무기들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에 로골적으로 핵위협공갈을 일삼아왔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소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미국은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았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공공연히 감행되였지만 그 어떤 국제기구도 국제조약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미국의 핵위협은 계속되고 날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우리의 핵보유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 세계유일의 핵무기사용국이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 핵선제타격대상으로 지명하고 각종 핵전쟁살인장비들을 끌어들여 대조선적대시책동과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중시켜온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의 선택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핵위협이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어준셈이다.

현실은 누가 국제적규탄과 배격의 대상이 되여야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그 어떤 발악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도발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 송 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려워보려는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이다》가 3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 A/70/760-S/2016/179호로 배포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지지하여

나이제리아정당 성명 발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지지하여 2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적대세력들의 모험적인 시도는 용납될수 없다.

그 어느 나라나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온반로케트를 리용한다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조선이 위성의 평화적사명에 대하여 그토록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화국의 위성발사에 대하여 시비하는것은 천만번 부당하다.

주권국가이라면 령토의 크기에 관계없이 국제무대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보장을 위해 위협한 군사적모험을 즉시 걷어치워야 한다.

체스꼬보도기관 성명 발표

체스꼬신문 《쁘로스페숍스까 쁘라브다》 편집부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지지하여 2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괴수인 미국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려는 조선인민의 결심은 사람들과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핵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제국주의자들과 당당히 맞서싸우는 조선인민에게 수많은 체스꼬인민이 지지를 표시하고있다.

조선인민의 도덕물리와 의지, 실천활동은 서방의 거짓선전을 단호히 배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반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하고있다.

체스꼬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과 당당히 맞서나가고있는데 대해 공감하고있다.

편집부는 조선반도정세가 안정될것과 조선인민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조국건설과 혁명사업을 전진시킬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앙골라인사 담화 발표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청년조직 국제비서 페르나르드 까 또뚜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지지하여 2월 2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근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초긴장상태에로 치닫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중대성명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청년조직은 조선인민의 자위적립장에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그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선제공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침략광기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국가의 자위적선택인 핵억제력강화와 정정당당한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 전례가 없는 날강도적인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한 미국은 그것도 모자라 무력으로 우리를 먹어보려고 하고있다.

핵선제공격을 노린 미국의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미국은 올해에 남조선에서 감행하는 전쟁연습에 미군무력을 전례없는 규모로 투입한다는것을 시사하였다.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에 우리의 탄도미싸일에 대한 선제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4D작전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될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때 새로 꾸며낸 《작전계획 5015》의 핵심항목인 련합《참수작전》과 우리의 핵 및 전략로케트무력 《제거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하겠다는것이다. 적들이 떠드는 《참수작전》이라는것은 우리의 핵 및 전략로케트《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명령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극악무도한 선제타격내용을 담고있다. 전시 우리의 최고지도부와 핵 및 전략로케트군기지들을 비롯한 중요전략적대상물타격을 작전임무로 삼고있는 미제침략군 특군 1특수전단과 75특공련대, 미해병대 특공련대, 미공군 720특수전술전대, 미해군특수전단 《씰》팀 등 특수작전부력들이 전개되였다.

지난 시기 해외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 특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거의 모든 특수작전부력을 포함한 침략부력이 일시에 남조선에 쓸어든적은 일찌기 없었다.

미제는 조선반도주변에서도 핵무력을 증강하고있다. 미국의 3대핵타격수단의 하나인 《B—52》전략폭격기가 동북아시아지역을 편질나게 배회하고있다. 미공군의 《F—22》최신예스텔스전투기들이 사전예고도 없이 일본의 미군기지들에 무리를 지어 날아들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작전수역으로 하고있는 미7함대의 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와 함세하기 위해 핵항공모함 《존 씨. 스테니스》호전단이 서태평양수역에 밀려들었다. 최신형구축함 《배리》호와 핵잠수함들인 《살머트》호, 《씨리 오브 코퍼스 크리스티》호도 7함대에 새로 배속되였다.

합동군사연습의 간판밑에 각종 핵타격수단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밀려들고있는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사태이다.

미국이 해마다 세계도처에서 불장난을 벌려놓고있지만 조선반도에서처럼 핵전쟁획책들을 공개하면서 방대한 핵전쟁장비들을 출동시켜 대규모실전연습을 벌리는 곳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공갈하여 크게 놀래우는 한편 기회를 보아 어마어마한 핵무장장비들의 엄호하에 각종 특수작전부력들을 들이밀어 선제공격을 가할것을 피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호전광들이 《년례적》이요, 《방어적》이요 하던 합동군사연습의 파렴치한 간판마저 벗어던지고 조선반도의 핵위기를 폭발시킬 위험한 전쟁도박을 하려 하고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면서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덮쳐보려고 기회만을 엿보아왔다. 오바마행정부는 우리의 《붕괴설》을 내돌리고 《전략적인내》정책을 표방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한시도 버리지 않았다. 우리 공화국을 붕괴에 선제공격하여 《점령통치》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의 공개, 핵선제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주변지역에 집중배치해놓고 편질나게 감행한 우리의 종심에 대한 핵타격연습들은 실전으로 번져질수 있는 호전광들의 망동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호전광들은 우리 측을 향해 불의에 수십발의 로탄을 발사하는 군사적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정세를 전쟁의 문어구에까지 몰아갔다.

우리는 조선반도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극도에 이른 미국의 대조선침략열기를 식혀주기 위해 미국이 무모하게 나오는 경우 그에 따른 대응조치가 있게 된다는것을 알아들을만큼 경고도 하고 충고도 주었다. 조선반도정세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을 자제하며 정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면 미국본토와 가까운 곳에서 벌릴데 대한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기하였다. 지난해에는 미국이 북침을 노린 핵전쟁연습을 림시중지하는 경우 핵시험을 림시중지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다는 아량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미국은 끝끝내 방대한 침략무력과 살인장비들을 끌어다놓고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으며 무엄하게도 《정양점령》을 기본목표로 삼은 상륙훈련까지 감행하였다.

미국은 1950년대에 우리 나라를 목표로 가장 극악한 핵폭탄투하공격계획을 짜놓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이 된 오늘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고있다는데 있다. 어떻게 하나 실패한 대조선적대시정책, 《전략적인내》정책을 힘으로 만회해보겠다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자들의 더러운 흉심이 드러난 이상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불가피하다.

미국이 각종 전략전술무기들을 조선반도의 남쪽땅에 배비해놓고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절대로 팔짱을 끼고있을수 없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다. 힘의 만능을 떠드는 침략자, 호전광들은 오직 힘으로 답새겨 짓뭉개야 한다.

미국이 군사적힘으로 우리를 어째보겠다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것이다.

선제공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방식은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될것이다. 우리에게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땅덩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팰수 있는 세계가 가져본적이 없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이 다 있다.

우리의 강위력한 핵타격수단들은 침략의 아성들을 조준권안에 넣고있으며 보복타격의 격발기는 당겨놓은 상태에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우리 혁명무력이 보유하고있는 강위력한 모든 전략 및 전술타격수단들은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것이라는것을 이미 엄숙히 경고하였다. 우리의 막강한 무력은 도발자들이 감히 움찍하기만 하면 본거지들을 목사발로 만들것이다.

타격대상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지들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들과 미국본토이다.

남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해 세기를 두고 다져온 우리 식의 타격전은 이 세상이 상상할수도 없는 보복전으로 될것이며 만가지 악의 소굴이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재가루로 만들어놓을것이다. 백악궁에 사로잡힌 미국은 제땅에서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초강경의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만일 미국이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분별을 잃고 감히 덤벼든다면 차례질것은 우리의 정의의 핵불벼락에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존재를 마치는 파국적인 재난뿐이다.

리 현 도

남잡이가 제잡이로 될수 있다

정보화시대인 오늘날 인터네트는 인간의 생활령역에 깊이 자리잡고있다. 세계적으로 3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네트를 사용하고있다.

영국 옥스포드종합대학의 인터네트연구소 교수 리토르 쉰베르게르는 인터네트가 사람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일부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인터네트의 영향력이 보다 강해질수록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인터네트세계에서 절대적인 안전이란 없다, 특히 인터네트가 갓 보급된 나라들에서 철저한 보안체계를 세우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네트가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되고있는 오늘의 엄혹한 현실에 립각한 타당한 견해이다. 싸이버범죄는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난 시기 몇몇 개인들의 해킹으로 시작된 싸이버공격이 지금에 와서는 국가들의 안전문제로, 국제사회의 우려거리로 되고있다. 세계적으로 싸이버범죄로 인한 년간 손실액은 약 6 00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세계대전은 싸이버전쟁으로 될것이라고 예언하고있다. 사실상 해킹문제를 놓고 여러 나라들사이에 벌어지는 첨예한 공방전은 그러한 예언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싸이버공간의 가장 악랄한 과피자, 싸이버테로의 원흉은 미국이다. 인터네트를 통제관리하면 다른 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통제할수 있으며 지배주의야망을 손쉽게 달성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미국은 인터네트관리에서 차지하고있는 특수한 지위를 리용하여 싸이버공간을 하늘과 땅, 바다, 우주에 이어 5번째 령역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패권을 노리고있다. 싸이버사령부가 조직된데 이어 미군이 경고없이 싸이버공간에서 임의의 대상에 선제타격을 가할수 있게 한 《싸이버전략》이 작성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17년을 목표로 전세계에 퍼져있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콤퓨터와 관련장비들의 위치를 알수 있는 《싸이버지도》개발에 달라붙고있다.

싸이버공격이라는 또 하나의 침략전쟁수법으로 패권주의야망을 키어이 실현하려는 미국의 광기는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미국가안전보장국 요원이였던 스노우덴은 《국가급의 싸이버공격은 미국이 먼저 시작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2010년에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활동을 가로막기 위해 경제제재와 함께 싸이버공격을 중점으로 하는 책략을 세우고 그 실행에 달라붙었다. 이란의 원자력발전소에서 1 000여대의 원심분리기가 파괴되였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첫 국가급싸이버테로행위를 감행한 이 해커제국은 반미자주국가이든 동맹국이든 가리지 않고 싸이버공격을 가하고있다.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방동맹국들의 지도자들과 정부기관들, 주요회사들이 미국가안전보장국의 도청대상으로 되여있다. 손전화기는 물론 정부 및 개인콤퓨터들에 침입하여 숱한 국가 및 개인비밀들을 절취하여서는 지배와 략탈목적에 써먹고있는것이다.

미국이 악랄하게 벌리는 싸이버전은 비단 그 어떤 대상의 파괴나 자료절취에만 머무르는것이 아니다. 미국은 싸이버공간침투를 벌릴수 있는 공간으로, 심리모략전을 벌리는 마당으로 써먹고있다.

언젠가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미국의 가장 큰 수출상품은 땅에서 나는 농작물이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라 영화와 음악, 서적, 콤퓨터용쏘프트웨어를 비롯하여 대량생산되는 류행문화제품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저속하고 불건전하며 미국식《가치관》을 설교하는 동화상자료들과 오락프로그람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는 한편 정보기술을 리용한 거짓정보조작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저들의 목적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사한다며 미국이 강행한 《아랍의 봄》이 바로 그러하였다.

2010년 12월 튜니지에서 한 시민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난 사회적충돌과 관련한 동영상이 인터네트를 통해 류포되였다. 미국은 이것을 반정부여론을 조성하는데로 몰아갔다.

리비아사태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2011년에 리비아지도자 가다피를 제거하기 위해 저들의 졸개들을 내세워 가다피가 비네수엘라로 도주하였다는 소문을 류포시켜 민심을 혼란시켰다. 그로 하여 가다피는 국영TV방송에 여러번 출연하여 자기의 거처지를 매번 밝히지 않으면 안되였다.

현대적정보수단을 통한 미국의 집요한 심리모략전의 결과 여러 나라들에서 정권들이 련이어 붕괴되였다. 이 나라들은 류혈적인 민족간, 종족간 분쟁과 국도의 무질서가 판을 치는 수난의 대지로, 사람들은 살 곳을 찾아 정처없이 떠다니는 방랑객으로 전락되였다.

지금 미국은 최신정보기술을 리용하여 제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의 존엄을 모독하고 영상을 훼손시키는 남조선전물들을 마구 만들어내여 류포시킴으로써 세계민심을 혼란시키는 심리모략전에 미친듯이 매달리고있다.

그 주되는 파먹이 우리 공화국이다. 지난해 1월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북조선이 매우 강한 핵보유국이라 핵을 보유하고있기때문에 군사적방법으로 전복할수 없으므로 대중선전물이나 인터네트를 통한 방법으로 붕괴시켜야 한다고 뇌까렸다.

수십년간에 걸친 우리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패한 미국이 싸이버공간을 새로운 대결마당으로 정한것이다. 《쏘니 픽처스》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조선싸이버공격설을 국제사회에 집요하게 류포시키며 제재소동에 광분한것도, 반공화국여론전의 도수를 높이고있는것도 여기에 기인된다.

그러나 싸이버공간을 침략적인 야욕실현에 악용하는 미국이 알아야 할것이 있다.

첨단과학기술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은 남잡이가 제잡이된다는 속담을 새기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배 금 희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여

미국에서

미국의 유타주에서 2월 27일 경찰의 야수적만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주의 쏠트 레이크시에서 16살 난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광경을 목격한 많은 군중이 시위에 떨쳐나섰다. 경찰들이 시위만압에 광분하던 끝에 여러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해갔다.

일본에서

일본 도꾜에서 최근 미군기지이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정부는 오끼나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헤노꼬의 바다를 파괴하지 말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후텐마미공군기지를 나고시의 헤노꼬연안지역으로 옮기려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이보다 앞서 일본 도꾜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4 000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헌법을 수호하자!》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헌법해석을 제멋대로 변경하여 조작한 부당한 《안전보장관련법》을 페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도이췰란드에서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서 2월 28일 당국의 대미추종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수리아에서의 전쟁은 미국을 괴수로 한 서방에 의해 일어났다고 하면서 《테로를 반대한다》, 《전쟁을 그만두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당국이 미국에 추종하는 대외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리스에서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ㄱ-610372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납송등록 및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